



제21차 여성정책포럼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일 시 : 2004년 9월 16일(목) 14:30 ~ 17:10

장 소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

한국여성개발원

초 대 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1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매년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기업의 확대는 **여성인력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 전문인력**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 지원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60% 이상(2002년 현재)이 숙박업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 분포되어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는 여성기업의 성장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여성정책포럼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나라 여성창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의 성공모델과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유익한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 9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서 명 선



- 14:30~15:00 등 록
- 15:00~15:10 인 사 말 : 서 명 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 15:10~15:30 사 회 :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노동통계연구부 부장)

주제발표 :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발 표 : 양 인 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장 미 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 난 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 15:30~15:50 사례발표 : 강 형 자 ((주) 인터넷 시큐리티 대표이사)

- 15:50~16:40 토 론

손 정 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창업보육센터 팀장)

이 상 식 (강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 승 원 (중소기업청 소기업창업과 사무관)

조 영 자 ((주) 보미화장품 사장)

황 순 용 (여성부 인력개발담당관실 여성창업자금지원 담당)

- 16:40~17:10 종합토론

- 17:10 폐 회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1
I. 서론	2
II. 여성창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III. 여성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9
IV.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	44
V. 요약 및 정책대안	58
 사례발표로 본 여성기업인의 리더십 분석	65
1. 사 례	69
2. 기술 혁신 전략	71
3. 마케팅 추진 전략	77
4. 마케팅에서의 risk	82
5. 교훈	84
6. 여성기업인의 리더십 제안	86
7.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과 해결책 모색	90
 토론문 I	95
토론문 II	97
토론문 III	100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양 인 숙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장 미 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 난 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목 차

I. 서 론	2
II. 여성창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III. 여성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9
IV.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	44
V. 요약 및 정책대안	58

I. 서 론

우리 경제는 위환 위기를 계기로 기업구조, 금융 등 모든 부문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채무구조가 취약했던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였고, 신규 창업이 팔목할 만큼 증가하여 중소기업 구조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벤처붐과 더불어 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이 부각되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켰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신규 창업이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소규모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38.6%)과 도매소업(30.1%)에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기업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전문대졸 이상 미국 50%, 캐나다 70%),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여 성장기반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창업활동도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여성기업인의 대부분이 준전문직, 또는 사무직으로 일하다 결혼·출산으로 퇴직하고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여 창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전문분야에서의 창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창업의 여성기업 성장단계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보고,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기업가의 창업동기, 창업과정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여성 창업활동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창업의 정의

창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로이 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년 1월 개정)에서는 창업을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창업지원법상 창업이 아닌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¹⁾. 이런 경우에는 형식상의 절차만 있을 뿐 창업의 효과가 없는 순수한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지원 혜택이 부여되지 않음. 원시적으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을 신규로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첫째,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둘째, 법인전환, 조직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창업의 의의

창업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새로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97년 말 이후 금융위기 과정에서 양산된 대량실업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둘째, 21세기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이 정보소프트웨어산업, 고부가가

1) 창업이란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창업지원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55), 부동산업(70), 무도장 운영업(88991),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88331, 88332), 도박장 운영업(88995),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기타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제외 93),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한다.

치 서비스산업 등과 같은 산업 등에 주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창업기업의 증가는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부터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이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권명중, 2000).

또한 1990년대 중소기업의 구조변화 과정에서 기술·지식집약형 업종으로의 활발한 신규 창업을 통해 산업조정 과정에서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신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중요성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기술·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 전환시켜 나감에 있어 선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양현봉, 2002).

이와 같이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의의가 중요시됨에 따라 창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창업의 사회적 의미는 고용의 창출, 새로운 산업의 창출, 경쟁의 활성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3. 여성 창업활동의 특징

가. 여성창업의 동기

여성 창업동기의 특징은 남성 창업가의 창업동기는 독자적으로 일을 하고 싶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보다 높은 통제력을 얻기 위해서, 또는 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를 방출(push) 요인과 유인(pull) 요인으로 구분할 때, 방출 요인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유인 요인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영옥, 1998). 즉, 여성 기업인의 창업 방출요인은 직장생활에서의 한계, 구직의 어려움, 육·가사와의 병행의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유인요인은 독립성, 자아실현의 추구, 기업가적 충동에 의해 적극적으로 창업하게 되는 경우이다.

Buttner & Moore(1997)는 남성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의 제한된 승진기회나 불안정한 직장생활과 같은 부정적 창업촉진요인(push factor)보다는 긍정적 창업촉진요인(pull factor)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한정화 외, 2003에서 재인용). 한정화 외(2003)의 연구에서는 여성창업가의 창업동기 유형을 독립욕구, 개발욕구, 회의적 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의 개인적 동기요인을 주로 강조한 연구들과는 달리, 상황적 요인이 매우 주요한 창업동기요

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여성 기업인의 창업 동기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일을 하겠다’거나 ‘나의 잠재력을 실현해 보고 싶다,’와 같은 유인 요인에 끌려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출 요인의 대표적인 항목은 ‘전 직장에 불만족하여 창업하였다’는 점에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도 특이할 만한 것이다(전방지, 2002).

창업동기는 창업한 결정을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창업동기는 방출요인들과 유인요인들로 구분되는 데, 방출요인에 의한 창업은 필요에 의해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이고, 유인요인은 적극적 이유 때문에 선택에 의해 창업하게 된 경우이다. 끌어당기는 요인으로서 독립성, 자아실현의 동기, 기업가적 충동, 더 많은 소득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 사명, 사회적 지위와 권력추구 등이 있다. 창업동기에 관한 기존 연구는 여성창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밀어내는 요인으로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 그리고 소득에 대한 불만, 실업, 유동적 스케줄의 선호, 그리고 가족 걱정 순서로 들고 있다.

방출(push) 요인과 끌어당기는(pull) 요인으로 창업동기를 구분하고 있지만, 창업동기론은 실제 여성의 창업 결정은 두 종류의 요인이 결합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됨을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창업은 두 종류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선택과 필요의 두 극 사이에서 일어난다. 기업가의 창업동기를 기준으로 여성기업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선택적 요인이 크고 약간의 필요에 의해 창업하는 선택적 창업과 필요성이 주된 요인이나 약간의 선택적 요인이 작용하는 필요에 의한 창업, 그리고 이 중간에 두 동기가 반반씩인 혼합형 창업이다(Goffee and Scase, 1987; OECD, 1997:45-46). 어떤 지점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 기업활동에 대한 태도가 결정된다. 즉, 끌어당기는 요인이 더 중요한 경우 기업활동은 성장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밀어내는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기업가적 활동이 자신의 고용보장과 한정된 규모의 기업활동에 대체로 제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연구는 여성창업에서 밀어내는 요인들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내고 있다. 즉, 여성의 경우 선택적 창업보다는 필요에 의한 창업 유형이 보다 일반적이라는 결과이다(Goffee and Scase, 1987; OECD, 1997, 전방지, 2002에서 재인용).

나. 여성창업의 유형

창업유형의 분류는 창업배경, 목적, 관리방법을 포함한 많은 특성에 의해서 분류될 수 있다. 최근까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특정한 형태의 분류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관점에 따라 벤처기업의 성과, 관리적 특성, 기업구조, 혁신정도, 창업과정, 기회의 인식 등으로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상석(2003)의 연구는 창업자 유형을 기회창업자(*general/opportunistic entrepreneur*)와 기술창업자(*technical/craftsman entrepreneur*)로 분류한 기존 연구들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의 연구를 재인용하면, Schinedehutte 외 (2000)는 창업자의 유형을 기회창업자(*general/opportunistic entrepreneur*)와 기술창업자(*technical/craftsman entrepreneur*)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발전적 연구들에서는 기술창업자는 교육적, 관리적 경험이 부족한 생산직(*blue-collar*) 출신이며, 관리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술적인 일을 선호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making a lot of money*)”보다는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것(*making a comfortable living*)”에 일차적인 동기요인으로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다양한 투자자와 파트너를 선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성장 사업을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회창업자(*opportunists*)는 폭넓은 경험과 고학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미래지향적이고 관리적, 도전적인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기꺼이 수용한다. 그들의 조직은 급속히 성장하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외부 자금조달에 적극적이다. 이들 창업자들은 재무적 이득과 성공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기회에 의해서 동기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석, 2003 재인용).

이상석(2003)의 창업유형의 두 가지 분류에서 기본적인 차이는 관리적, 교육적 관점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술창업은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 중심의 창업이며, 기회창업과는 대조적으로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하고 비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교육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는 창업으로 보았다.

다. 여성창업의 성공요인

산업부문에 따라 여성기업의 창업 및 성공가능성이 달라지는 데, 여성은 가정 내 역할의 확장으로 간주되는 전통적, 여성업종에 집중하게 된다. 해당 산업에서의 취업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이 여성 기업인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Brush, 1997; Zabludovsky, Gravinsky, 1997, 전방지, 2002에서 재인용).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는 여성의 취업경험을 제약한다. 이처럼 사회구조가 여성의 자원동원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소수의 산업에 집중하게 되는 기업활동의 성별 산업분리를 낳는다.

빈봉식 외(2002)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창업자금 조달, 경영관리의 4가지 요인이 소상공인 창업 성공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성취욕구와 통제위치, 그리고 모호성에 대한 인내력이, 사업아이템의 원천으로는 우연한 기회와 전직경험이, 창업자금 조달방법에서는 자기자금과 정책자금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한 사업체의 경영관리요인에서는 생산·기술혁신, 자금통제, 유능한 종업원, 마케팅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강한 성취욕구와 자신의 실무경험과 특성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조달과 창업 후 경영관리가 잘 조합될 때,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한 외(2001)의 연구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특성 요인에서는 창업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업종경험과 창업 및 경영경험, 그리고 창업자의 심리학적 특성으로 성취욕구, 행동통제위치, 위험감수성향, 모호성 수용력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성공요인은 창업자금의 양과 원천, 자금부족 등 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요인으로서 자금통제, 계획, 상담, 가격, 촉진, 입지, 품질이 다루어졌다. 그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의 성취욕구가 소상공인의 만족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매출액과 순수익의 성과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취욕구가 높은 창업자일수록 보다 큰 만족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창업자금액이 클수록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순수익에서는 창업자금과 자기자본율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즉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한 자기자본율이 높을수록 순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관리요인에서는 품질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결과변수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라. 여성창업의 애로사항

우리나라 창업활동의 실패 요인으로서는 경영관리 미숙과 시장확보의 실패 또는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창업자금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빠듯한 창업자금, 아니면 오히려 적정규모보다 많이 모자라는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자금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박정기, 2001).

여성 창업은 1980년 이후의 초기 전통적 여성 창업과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창업가들은 대학에서 경영이나 기술보다는 인문분야를 주로 전공하였기에(Stevenson, 1986) 창업 후 경영관리나 재무, 마케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서비스 업종에서 소규모로 창업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Pellegrino & Reese, 1982).

여성기업의 창업관련 애로사항은 가사노동/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금조달(18.6%), 인력확보(8.8%), 남성위주의 접대문화(8.2%), 판매처 확보(8.2%), 부정적 사회인식(7.7%), 성차별(5.7%), 제품개발(5.2%), 시설 및 설비확보(4.2%), 사업 아이디어 발굴(3.6%)의 순으로 나타났다(문재 외, 2001)

최영숙(2000)의 연구에서는 여성 창업가의 창업이후 1년 동안 느낀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는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력확보 및 관리, 판매선, 경영관리 경험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Ⅲ. 여성창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여성 기업 현황

통계청 발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의 2002년 기준 원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한 2002년 기준 여성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수는 총 1,117,664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3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8%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수 증가율 2.8%보다 컸다.

전체 종사자수 규모는 14,608,322명으로 이중 여성 사업체 종사자 수는 5,892,187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8,716,135명 59.6%는 남성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여성 대표자 사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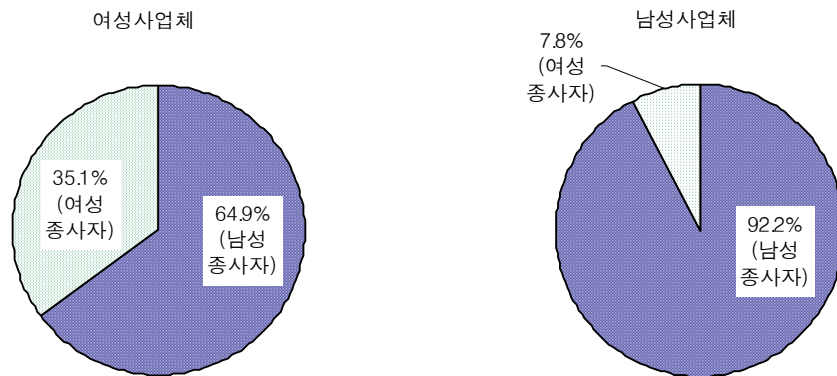
	2001년	2002년	전년대비
전체 사업체수(A)	3,046,554개	3,131,964개	2.8%
여성 사업체수(B)	1,066,375개	1,117,664개	4.8%
여성사업체비율 (B/A×100)	35.0%	35.7%	0.7%p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조사기준일(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업체는 제외한다.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
-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

<그림 1> 대표자 성별 종사자 성별 분포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전체 사업체 종사자 14,608,322명 중 여성은 2,745,755명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분포를 사업체 대표자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7.8%에 불과한 반면, 여성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35.1%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38.6%(635,497개)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이 30.1%(335,969개)로 그 다음으로 많아 두 산업이 여성 사업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한편 남성 사업체의 경우는 ‘도소매업’은 27.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사업체와 달리 ‘운수업’과 ‘제조업’이 각각 14.8%, 14.0%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사업체의 ‘제조업’ 비율은 4.6%(51,264개)로 낮다.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의 산업별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여성 사업체에서의 비율이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이외에 ‘교육서비스업’(5.8%, 65,039개)으로 나타났다.

<표 2> 산업별 사업체 분포

(단위 : %, 개)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농업 및 임업/어업/광업	0.0	0.2	0.2	178	4,091	4,269
제조업	4.6	14.0	10.7	51,264	282,657	333,92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0	0.1	0.0	13	1,473	1,486
건설업	0.5	3.6	2.5	5,947	72,635	78,582
도소매업	30.1	27.9	28.7	335,969	562,905	898,874
숙박 및 음식점업	38.6	10.1	20.3	431,178	204,319	635,497
운수업	0.9	14.8	9.8	9,656	298,697	308,353
통신업	0.1	0.3	0.3	1,204	6,902	8,106
금융 및 보험업	0.3	1.6	1.2	3,256	32,941	36,19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	3.8	3.3	25,542	76,761	102,303
사업서비스업	0.8	3.5	2.5	8,392	71,249	79,6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	0.6	0.4	172	11,852	12,024
교육 서비스업	5.8	2.4	3.6	65,039	47,970	113,00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8	2.3	2.1	19,855	46,198	66,053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3.4	3.9	3.8	38,376	79,135	117,511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0.9	10.6	10.7	121,623	214,514	336,137
전산업	100.0	100.0	100.0	1,117,664	2,014,299	3,131,964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표 3> 규모별 사업체 분포

(단위 :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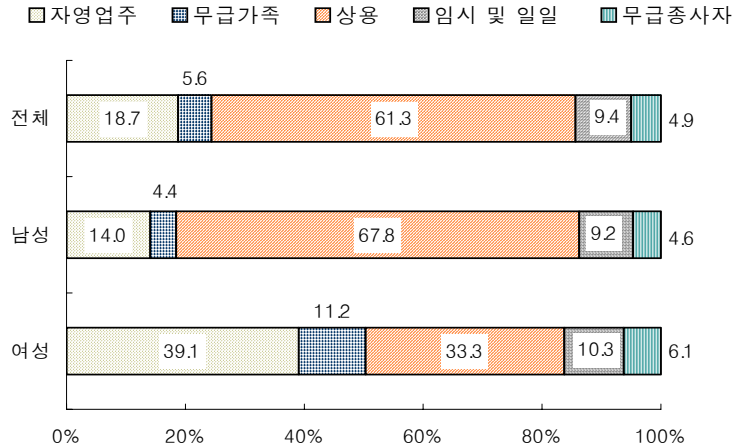
	5인 미만	5~9	10~19	20~49	50~99	100~299	300인 이상	전 규모
여성 대표	92.3 (1,031,527)	5.6 (62,437)	1.4 (15,523)	0.6 (6,408)	0.1 (1,310)	0.0 (391)	0.01 (68)	100.0 (1,117,664)
남성 대표	79.6 (1,603,845)	10.9 (218,872)	5.2 (103,749)	2.9 (59,391)	0.9 (17,616)	0.4 (8,420)	0.12 (2,406)	100.0 (2,014,299)
전체	84.1 (2,635,373)	9.0 (281,309)	3.8 (119,272)	2.1 (65,799)	0.6 (18,926)	0.3 (8,811)	0.08 (2,474)	100.0 (3,131,964)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여성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이 92.3%(1,031,527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5~9인’이 5.6%(62,437개)로 그 다음으로 많다. 두 규모를 합하여 ‘10인 미만’으로 보면 97.9%를 차지하여 남성 사업체에서 ‘10인 미만’의 비율 93.1%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 사업체의 ‘300인 이상’ 규모 비율은 0.01%로 남성의 0.12%에 비해 매우 낮다.³⁾

3) ‘300인 이상’ 규모에서 종사자수 ‘1,0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여성 사업체 10개사, 남성 사업체 360개사로 남성

<그림 2> 종사상 지위 분포



자료 :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원자료.

여성 사업체 종사자들의 지위별⁴⁾ 분포를 보면, ‘자영업주’가 39.1%(1,072,987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상용종사자’ 33.3%(915,479명), ‘무급가족종사자’ 11.2%(306,864명), ‘임시 및 일일 종사자’ 10.3%(281,564명), ‘무급종사자’ 6.1%(168,861명)로 순서로 많았다. 이를 남성 사업체와 비교하면 ‘자영업주’ 비율은 약 2.8배 가량 높은 반면, ‘상용종사자’ 비율은 남성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다.

여성 사업체의 ‘자영업주’ 비율이 남성 사업체에 비해 높은 것은 앞서 살펴본 사업체 형태에서 여성 사업체의 ‘개인사업체’ 비율이 95.7%로 남성의 81.7%보다 높은 사실로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종사상 지위의 산업별 분포를 여성 사업체와 남성 사업체와 비교해 보면 여성 사업체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이 전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49.2%, 44.6%로 가장 높았다.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이 36배가 많다 (통계청(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4)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상의 종사상 지위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거나, 봉급 혹은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여,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
- 임시 및 일일 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로자 등)

은 '상용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에 속하였고 '건설업'은 산업의 특성상 '임시 및 일일 종사자'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 사업체에서도 해당되었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는 '무급종사자'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보험업의 '보험판매원' 종사자가 많은 결과이다.

규모별로 산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사업체의 경우 '4인 이하'가 전체의 92.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역시 여성사업체가 많이 속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95.9%, 93.2%에 달하였다.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여성 사업체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97.0%였다.

남성 사업체의 경우도 '4인 이하'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남성 사업체의 79.6%로 가장 많고 '4인 이하'가 9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은 '운수업'(94.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92.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6%)으로 나타났다.

2. 여성 창업 현황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통계청의 『2001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여성 기업 약 103만개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제외한 사업체를 제외한 2043개 여성사업체를 대상으로 여성기업의 창업현황, 기업현황 전반에 관하여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는 조사대상기간은 2002년 1월1일~12월31일이었으며 실제 조사 실시는 2003년 5월17일~6월30일 기간 동안 여성 기업인에 대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2003년 여성기업실태조사」원자료를 입수하여 여성 기업인의 창업과정과 기업현황에 관해 분석을 하였다.

조사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이 770개, 37.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24개사, 11.0%, 교육/보건 서비스업 204개사, 10.0%이다.⁵⁾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이 40.7%, 832개사로 가장 많고 5~19인 미만이 36.6%

5) 전국 여성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숙박·음식업이 38.6%, 도·소매업이 30.1%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4.6%에 불과하다(통계청, 『2002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747개사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4> 조사대상 여성 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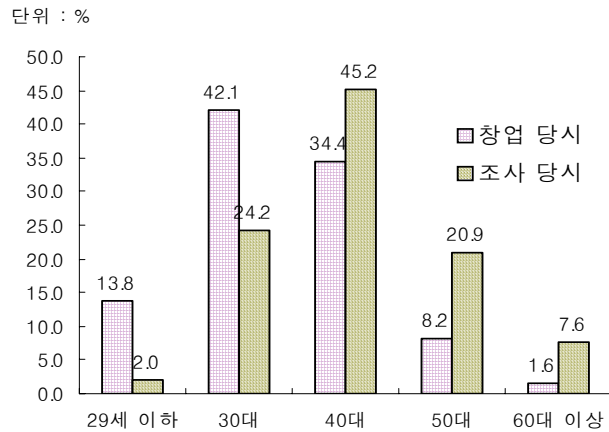
구분		개	%
전체		2,014	100.0
업종	제조업	758	37.6
	건설업	160	7.9
	통신업	67	3.3
	도소매업	219	10.9
	음식·숙박업	119	5.9
	운수업	79	3.9
	금융보험업	39	1.9
	부동산·임대업	63	3.1
	사업서비스업	188	9.3
	교육/보건서비스업	202	10.0
	기타	120	6.0
규모	5인 미만	818	40.6
	5~19인 미만	741	36.8
	20~49인 미만	336	16.7
	50~99인 미만	77	3.8
	100~299인 미만	33	1.6
	300인 이상	9	0.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가. 여성 창업기업가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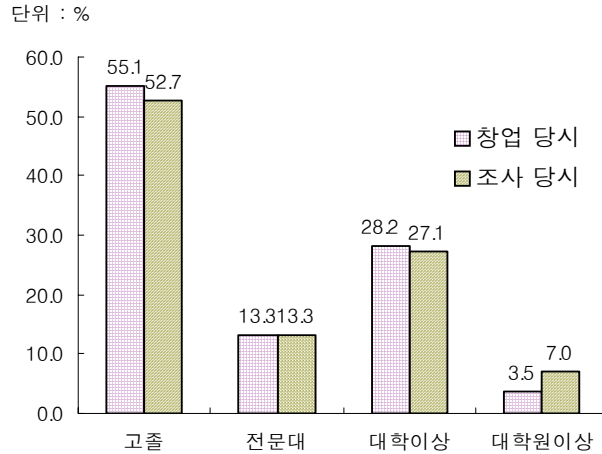
창업 당시 여성 기업인 평균 연령은 39세였고 연령 분포는 30대가 847명, 42.1%로 가장 많고, 40대 34.4%(692명)로 30~40대가 여성창업연령의 70%이상을 차지했다. 조사 시점에서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910명, 45.2%로 가장 많고 30대가 24.2%(488명), 50대가 20.9%(421명)이며 29세 이하는 2.0%(41명)에 불과해 창업 당시 연령 분포와 비교하여 기업의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연령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여성 기업인 연령 분포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4> 여성기업인 학력분포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이 55.1%로 1,1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대졸과 전문대졸에 각각 28.2%(567명), 13.3%(267명) 분포하고 있었다. 조사 당시 여성기업인의 학력 분포는 고졸이 52.7%(1,061명)이고 대졸이 27.1%(546명), 전문대졸이 13.3%(267명)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 당시 학력 분포와 비교해 보면 고졸의 비율은 약간 낮아지고 대학원이상의 학력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 이후 상위 학력으로 진학하여 학력 수준을 높인 결과로 볼 수 있다.⁶⁾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의 계열별 분포를⁷⁾ 보면 사회계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 15.2%, 교육계 15.1%, 예체능계 11.1%, 인문계 10.5% 분포가 컸다. 가장 많은 학과 단위로 살펴보면 사회계는 경영학, 자연계에서는 가정학과, 교육계는 유아교육과, 예체능계는 디자인, 인문계는 국어국문, 의학계는 약학과, 공학계는 건축관련학과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문대졸 이상 학력 전공계열별 분포

	%	명	주요 학과(명)
사회계	25.0	(238)	경영학과(137) 회계학(14) 사회복지(13) 행정학(11) 법학(10) 호텔경영학/관광경영학(8) 등
자연계	15.2	(145)	가정학과(50) 의상학과(27) 식품영양(20) 생물학(8) 등
교육계	15.1	(144)	유아교육(106) 교육학(29) 등
예체능계	11.1	(106)	(산업)디자인(28) 회화전공(24) 피아노(12) 응용미술(10) 체육학(5) 등
인문계	10.5	(100)	국어국문학(33), 영어영문학(25), 불어불문학(10), 일어일문학(9) 사학(7)등
의학계	6.7	(64)	약학과(28), 간호학(19), 의예과(7) 등
공학계	6.6	(63)	건축(인테리어)(18), 전자계산학/통계학(13) 정보처리(7) 기계공학(6) 전자공학(6)
무응답	9.8	(93)	-
전체	100.0	(953)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창업하였다’가 61.1%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사업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승계의 경우는 ‘남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가 17.7%,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승계하였다’가 4.9%,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인수하게 되었다’가 3.6%, ‘부친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가 2.1%로 각각 분류되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 학력의 여성기업인들의 ‘직접 창업’ 비율이 70.0%로 가장 높았고 대졸도 65.9%로 대졸 이상의 여성기업인의 직접 창업 비율이 전문대 이하의 학력에 비해서 높았다. 반면 ‘남편의 사업 승계’는 전문대졸과 고졸이 각각 21.7%, 19.9%로 대졸이상의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 이후 학력별 분석에서의 학력은 창업 당시 학력이 아니라 조사 당시 학력 변수를 이용하였다.

7) 전공계열별 분포는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통계연보』의 계열 분류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실태조사』에 나타난 약 87개학과를 인문계, 사회계, 교육계, 공학계, 자연계, 의학계, 예체능계 등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6> 학력별 창업 동기

(단위 : %, 명)

	남편의 사업 승계	부친의 사업 승계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승계	투자한 기업이 도산하여 인수	자신이 직접 창업	기타	전체
고졸	19.9 211	1.7 18	5.4 57	3.6 38	58.5 621	10.9 116	100.0 1,061
전문대	21.7 58	1.5 4	4.1 11	3.4 9	56.6 151	12.7 34	100.0 267
대학	13.6 74	2.9 16	4.2 23	3.7 20	65.9 360	9.7 53	100.0 546
대학원	10.0 14	3.6 5	5.7 8	3.6 5	70.0 98	7.1 10	100.0 140
전체	17.7 357	2.1 43	4.9 99	3.6 72	61.1 1,230	10.6 213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7> 창업전 경력*

(단위 : %, 명)

	가정주부	현회사의 임직원	기술 생산 기능직 종사자	도소매 자영 사업주	급여생활 자	전문직 종사자	전문경 영인	판매서비 스직	기타	전체
고졸	45.8 518	4.6 52	3.5 40	10.4 117	11.6 131	1.7 19	0.1 1	11.0 124	11.3 128	100.0 1130
전문대졸	28.6 82	6.3 18	3.1 9	11.5 33	32.4 93	7.3 21	0.0 0	8.0 23	2.8 8	100.0 287
대학	24.6 145	6.6 39	4.2 25	9.2 54	30.6 180	10.9 64	0.0 0	7.5 44	6.5 38	100.0 589
대학원	15.5 23	7.4 11	11.5 17	10.8 16	30.4 45	16.2 24	0.0 0	2.7 4	5.4 8	100.0 148
전체	35.5 768	6.0 130	4.2 91	10.2 220	20.7 449	5.9 128	0.0 1	9.0 195	8.4 182	100.0 2,164

*주 : 복수 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들의 창업 전 경력은 ‘가정주부’가 35.5%로 가장 많았고 ‘급여생활자’ 20.7%, ‘도소매자영업자’ 10.2%, ‘판매서비스직’ 9.0% 등으로 나타나 창업을 하는 여성들은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자의 학력별 경력 분포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급여생활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의 경우는 ‘가정주부’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자’ 비율은 높은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을 결심하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응답자의 66.2%가

대부분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개월’이내가 41.5%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24.7%, ‘1년~2년’ 14.8%, ‘2~3년’ 7.6%로 그 비율이 낮아졌고 그 다음 ‘5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로 많았다⁸⁾.

<표 8> 창업 결심에서 창업에 소요된 기간

(단위 : %, 명)

	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2년	2~3년	3년~5년	5년 이상	무응답	전체
고졸	43.6 463	23.7 251	13.1 139	6.9 73	4.9 52	7.2 76	0.7 7	100.0 1,061
전문대졸	40.8 109	24.7 66	18.4 49	6.4 17	2.2 6	5.2 14	2.2 6	100.0 267
대학	40.7 222	25.5 139	15.9 87	8.2 45	3.7 20	4.9 27	1.1 6	100.0 546
대학원	29.3 41	30.0 42	17.1 24	12.9 18	3.6 5	5.0 7	2.1 3	100.0 140
전체	41.5 835	24.7 498	14.8 299	7.6 153	4.1 83	6.2 124	1.1 22	100.0 2,014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애로점에서 대해서는 ‘자금 조달’이 전체 응답자의 4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판로개척’(7.9%), ‘인력 확보’(7.6%), ‘행정절차’(6.6%), ‘입지선정 및 확보’(5.5%), ‘사업타당성 분석’(4.2%), ‘경영에 교육훈련 미비’(4.2%), ‘사업업종의 선정’(2.9%), ‘사업정보 획득’(2.4%)으로 나타났고 기타가⁹⁾ 5.7%였으며 애로점이 ‘없다’는 비율은 4.0%였다.

학력별로 고졸의 경우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졸은 ‘인력확보’가 어려웠다고 느낀 비율이 다른 학력에 비해 높았다. 대학원 학력자의 경우는 ‘입지 선정 및 확보’가 어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8) 여성 기업형태별로 창업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의 경우 ‘6개월이내’가 44.5%, ‘6개월~1년’이 23.9%로 1년 미만이 68.4%로 이고 주식회사의 경우는 ‘6개월이내’ 31.7%, ‘6개월~1년’ 27.6%로 1년 미만이 59.3%로 개인기업보다 낮았다. 평균적으로 주식회사의 창업소요기간이 개인기업보다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기타 응답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40명), ‘가족 친지의 반대’(29명), ‘신용정보획득’(20명), ‘동업자간 마찰’(18명) 등이었고 소수의견으로는 ‘육아’가 2명, ‘사회적 인식’에 1명으로 나타났다.

<표 9>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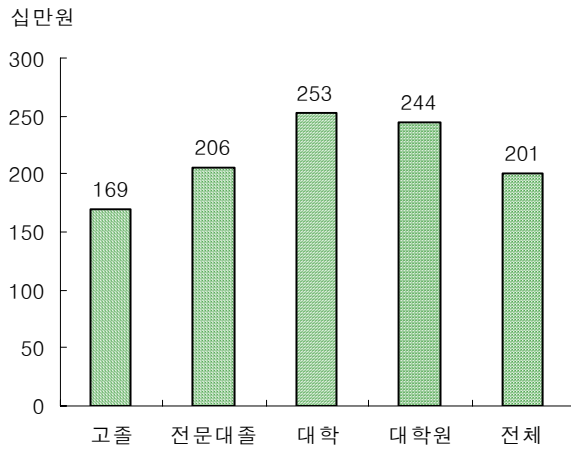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인력 확보	행정 절차	입지 선정 및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경영에 대한 교육훈 련 미비	사업 업종의 선정	사업 정보 획득	기타	없다	전체
고졸	52.6	8.8	7.4	6.0	5.3	3.4	2.5	3.6	2.1	4.5	4.0	100.0
	558	93	78	64	56	36	26	38	22	48	42	1061
전문 대졸	45.7	6.7	7.5	7.5	3.4	6.0	5.2	1.1	3.4	9.0	4.5	100.0
	122	18	20	20	9	16	14	3	9	24	12	267
대학	43.8	7.5	8.1	7.0	6.0	5.3	6.2	2.9	2.6	6.4	4.2	100.0
	239	41	44	38	33	29	34	16	14	35	23	546
대 학 원	49.3	5.7	7.9	7.1	9.3	2.9	7.1	1.4	2.1	5.0	2.1	100.0
	69	8	11	10	13	4	10	2	3	7	3	140
전체	49.1	7.9	7.6	6.6	5.5	4.2	4.2	2.9	2.4	5.7	4.0	100.0
	988	160	153	132	111	85	84	59	48	114	8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 미비’가 창업 준비시 가장 큰 애로점이었다고 말한 비율이 높아져 고학력 여성들에게 적합한 경영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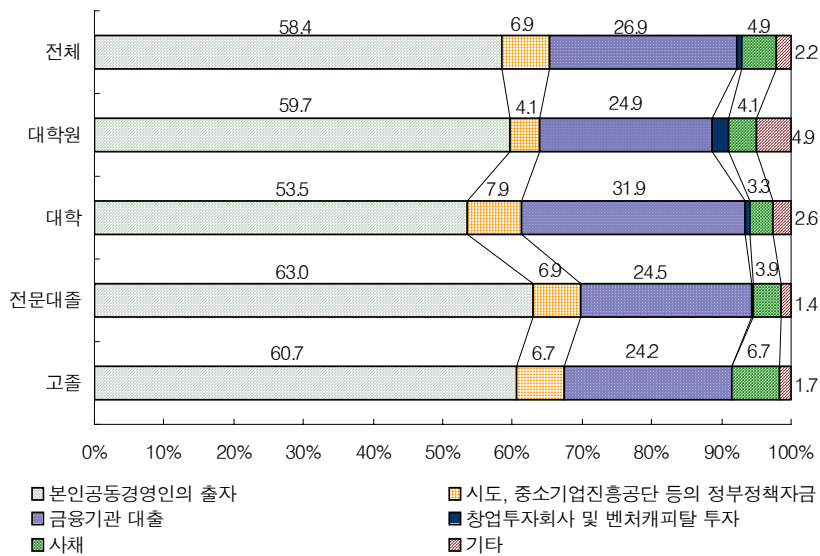
여성 기업인이 창업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 58.4%로 창업 자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금융기관대출”이 26.9%,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부정책자금” 6.9%로 나타났고 “사채”도 4.9% 비중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는 고졸과 전문대졸의 “본인·공동경영인의 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7%, 63.0%로 다른 학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6.7%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학력의 경우 “금융기관대출”과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부정책자금”의 비중이 31.9%, 7.9% 가장 높은 학력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평균 창업 자금 규모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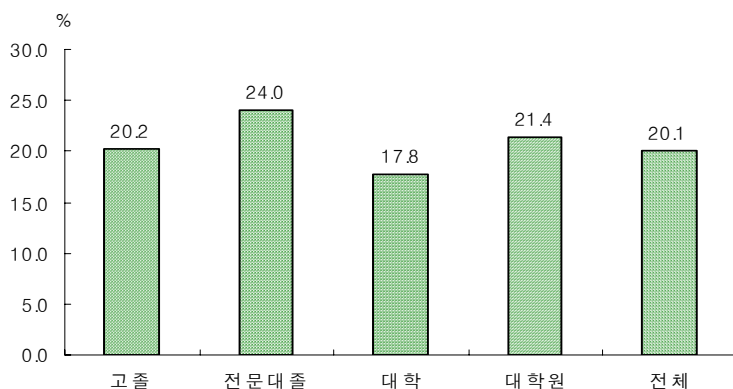
<그림 6> 창업 자금 조달 방법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창업 당시 은행, 투자회사, 정부산하 단체 등 관련 자금지원기관에 자금지원을 거절당한 경험에 대해 전체 여성기업인의 20.1%(405명)이 “있다”고 답하였고 학력 별로는 전문대졸이 24.0%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학원 21.4%, 고졸자 20.2%, 대졸자 17.8% 가 지원을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 제도권 창업 자금지원기관*의 자금지원
거절 경험 비율



*주 : 은행, 투자회사, 정부산하 단체 등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제도권의 창업 자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여성 기업인에게 그 사유를 알아본 결과 '담보를 요구하거나 담보가 없어서'가 58.5%로 가장 많았고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워서'가 30.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로 인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해서'는 5.4%에 머물러 여성기업에 대한 창업 자금지원 결정에서 기업의 사업정보보다는 담보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소수 의견에는 '보증인이 없어서'(0.7%)와 '이자가 비싸서'(0.5%)도 있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의 경우 '담보요구'로 인한 자금지원 거절 비율이 6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0> 창업 자금 지원을 거절당한 이유

(단위 : %, 명)

	사업전망 불투명 하다고 해서	담보를 요구하나 담보가 없어서	절차와 심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기타	전체
고졸	4.2 9	64.5 138	27.6 59	3.8 8	100.0 214
전문 대졸	7.8 5	56.3 36	28.1 18	7.9 5	100.0 64
대학	5.2 5	49.5 48	38.1 37	7.2 7	100.0 97
대학원	10.0 69	50.0 8	26.7 11	13.3 4	100.0 30
전체	5.4 22	58.5 237	30.1 122	5.8 24	100.0 405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3. 여성기업의 경영관련 현황

여성기업의 평균 연수는 '7년'이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7년'으로 가장 짧았고 대학원이 '9년'으로 가장 길었다. 기업연수별 분포를 보면 '3~5년'이 3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6~10년'이 25.4%, '1~2년' 18.1%, '11~20년'은 14.6%로 나타나 여성 기업 중 기업 연수 5년 이하는 55.3%를 차지했다.

<표 11> 평균 기업 연수 및 분포

	평균 기업연수 (년)	기업 연수별							(명, %)
		1년 미만	1~2년	3~5년	6~10년	11~20 년	21~30년	31~40년	
고졸	7	7 0.7	190 17.9	376 35.4	276 26.0	160 15.1	41 3.9	11 1.1	1,061 100.0
전문 대졸	5	6 2.2	60 22.5	111 41.6	64 24.0	20 7.5	5 1.9	1 0.4	267 100.0
대학	7	10 1.8	95 17.4	199 36.4	136 24.9	87 15.9	10 1.8	9 1.7	546 100.0
대 학 원	9	4 2.9	19 13.6	37 26.4	35 25.0	28 20.0	15 10.7	2 1.4	140 100.0
전체	7	27 1.3	364 18.1	723 35.9	511 25.4	295 14.6	71 3.5	23 1.1	2,014 10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기업의 형태는 '개인회사'가 67.9%로¹⁰⁾ 가장 많고 '일반법인'이 30.6%이었고 '장외 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은 각각 0.4%, 0.1%에 불과했다.¹¹⁾ 학력별로는 전문대 이하 학력의 '개인회사' 비율이 높고 대학의 경우 '개인회사'는 59.2%, '일반법인'은 39.4%였고 대학원 학력은 '개인회사'와 '일반법인'의 분포가 45.0%, 51.4%로 유일하게 법인이 개인회사 비율보다 높았다.

10) 이는 통계청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전체 여성 기업의 '개인사업체' 비율 95.7%보다 낮은 수치인데, 여경협이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는 실제 여성 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5인 미만의 도·소매음식 숙박업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에 개인사업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

11) 창업 당시 '개인기업'은 1,547개사(76.8%)와 '법인'은 463개사(23.0%)에서 이후 개인기업 중 202개사가 일반법인(199개)과 장외등록법인(3개사)으로 전환하였고 법인기업 중 24개사 개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변동이 있었다.

<표 12> 기업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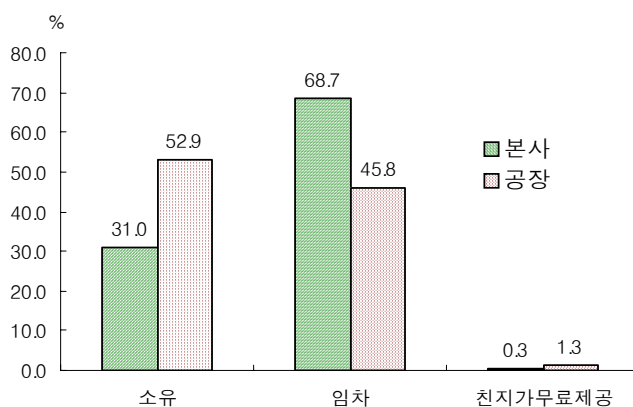
(단위 : 개사, %)

	코스닥등 등록법인	장외 등록법인	일반법인	개인회사	기타	전체
고졸	0	4	247	801	9	1,061
	0	0.4	23.3	75.5	0.8	100.0
전문	1	2	82	180	2	267
대졸	0.4	0.7	30.7	67.4	0.7	100.0
대학	0	0	215	323	8	546
	0	0	39.4	59.2	1.5	100.0
대학원	1	2	72	63	2	140
	0.7	1.4	51.4	45.0	1.4	100.0
전체	2	8	616	1,367	21	2,014
	0.1	0.4	30.6	67.9	1.0	100.0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체의 본사 소유 현황은 ‘소유’ 비율이 31.0%, ‘임차’가 68.7%로 임차비율이 높았고 여성 기업 중 공장이 있는 기업체의 공장 소유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소유’가 52.9%, ‘임차’가 45.8%로 공장의 경우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8> 본사 및 공장 소유 현황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의 경영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장개척’이 32.0%로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원가절감'(27.3%), '기존제품의 고급화'(9.9%), '신제품 개발'(8.1%), '작업환경개선'(5.5%), '종업원 교육훈련'(4.2%), '시장정보 입수'(4.2%) 등을 중점 경영부문으로 나타났다. '기존제품 고급화', '종업원 교육훈련', '디자인개발' 등은 학력별로 중점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차이가 나타나는 부문으로 '기존 제품 고급화'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고 반면 '종업원 교육 훈련'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중점 경영부문으로 생각하는 여성 기업인이 많았다. '디자인 개발'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3> 중점 경영부문

(단위 : %, 명)

	시장 개척	원가 절감	기존제품 고급화	신제품 개발	작업환 경개선	종업원 교육훈련	시장정보 입수	디자인 개발	광고 선전	외상매 출감소	기타	전체
고졸	33.0 350	15.1 160	11.4 121	6.9 73	5.2 55	2.5 26	3.9 41	2.9 31	2.9 31	4.0 42	12.3 131	100.0 1,061
전문 대졸	30.3 81	12.0 32	9.0 24	10.5 28	6.7 18	6.4 17	4.9 13	1.9 5	3.0 8	2.2 6	13.1 35	100.0 267
대학	31.3 171	13.0 71	8.1 44	7.5 41	5.7 31	5.9 32	4.6 25	4.0 22	2.9 16	1.3 7	15.8 86	100.0 546
대학원	30.7 43	7.1 10	7.1 10	15.0 21	4.3 6	6.4 9	3.6 5	11.4 16	2.9 4	0.0 0	11.4 16	100.0 140
전체	32.0 645	13.6 273	9.9 199	8.1 163	5.5 110	4.2 84	4.2 84	3.7 74	2.9 59	2.7 55	13.3 268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표 14> 기업정보 수집 통로

(단위 : %, 명)

	동료 기업주	신문/ 잡지	유통 및 판매업자	각종 연수 및 세미나	소비자	대학교수/ 기업지도관	사내 임직원	기타	전체
고졸	30.2 346	23.2 266	18.7 214	8.0 92	11.9 137	3.2 37	4.1 47	0.7 8	100.0 1,147
전문	30.6 100	24.8 81	14.4 47	11.0 36	7.6 25	6.7 22	3.7 12	1.2 4	100.0 327
대학	27.8 181	23.2 151	11.5 75	14.2 92	6.5 42	9.5 62	6.3 41	0.9 6	100.0 650
대학원	24.3 44	22.7 41	4.4 8	27.6 50	2.2 4	14.9 27	3.9 7	0.0 0	100.0 181
전체	29.1 671	23.4 539	14.9 344	11.7 270	9.0 208	6.4 148	4.6 107	0.8 18	100.0 2,305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들은 기업 정보를 '동료 기업주'(29.1%), '신문/잡지'(23.4%), '유통 및 판매업자'(14.9%), '각종 연수 및 세미나'(11.7%) 등에서 입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학력별로는 약간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동료 기업주'와 '유통 및 판매업자'에게 경영 정보를 입수하는 비율은 낮았고 반면, '각종 연수 및 세미나'와 '대학교수/ 기업지도관'에게서 기업 정보를 입수하는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여성 기업인들은 경영상 문제가 있을 때 '남편 및 가족'과 의논하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내 임직원'(23.3%), '타 기업 경영주'(14.5%), '전문가'(7.2%), '친구'(3.3%), '경영지도기관/본사'(1.9%)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사내 임직원'과 '타 기업 경영주', '경영지도기관/본사' 등과 의논하는 비율은 높았고 반면 '남편 및 가족'과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표 15> 경영상 문제점 의논 상대

(단위 : %, 명)

	남편 및 가족	사내 임직원	타 기업 경영주	전문가*	친구	경영지도기관/ 본사 등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56.1	18.7	12.4	4.8	3.9	1.7	2.5	100.0
	595	198	132	51	41	18	26	1061
전문	43.8	23.6	15.4	8.2	3.4	1.9	3.7	100.0
	117	63	41	22	9	5	10	267
대학	36.8	28.4	17.8	11.0	2.4	2.0	1.6	100.0
	201	155	97	60	13	11	9	546
대학원	30.0	38.6	15.7	9.3	2.1	2.9	1.4	100.0
	42	54	22	13	3	4	2	140
전체	47.4	23.3	14.5	7.2	3.3	1.9	2.3	100.0
	955	470	292	146	66	38	47	2014

* 주 : 전문가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을 말함.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 기업인은 기업활동의 가장 큰 애로점에 대해서 '자금조달'(29.7%), '판로개척'(26.6%), '인력확보'(19.5%), '기술개발'(5.2%), '사업정보 획득'(3.4%)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학력이 낮을수록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높은 반면,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고학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아졌다.

<표 16> 기업활동상의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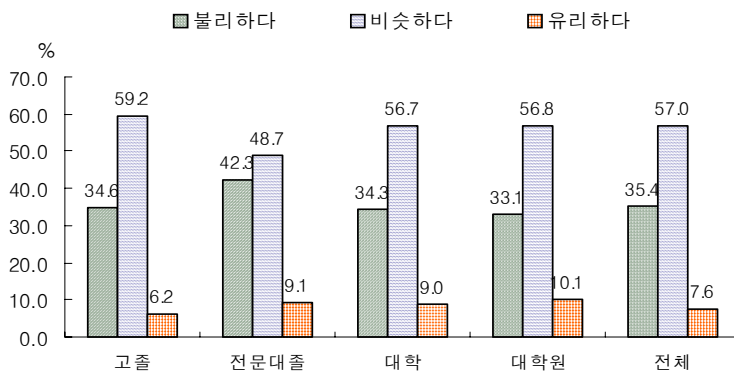
(단위 : %, 명)

	자금 조달	판로 개척	인력 확보	기술 개발	사업정보 획득	동업자간 마찰	행정 절차	신용 회복	없음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30.8 327	27.7 294	17.6 187	5.3 56	2.6 28	3.2 34	2.4 25	1.9 20	3.8 40	4.7 50	100.0 1,061
전문	33.0 88	23.2 62	20.6 55	6.4 17	0.7 2	3.7 10	1.9 5	0.4 1	4.1 11	6.0 16	100.0 267
대학	26.6 145	24.9 136	22.2 121	4.8 26	5.9 32	3.3 18	3.1 17	2.2 12	2.9 16	4.2 23	100.0 546
대학원	27.1 38	30.7 43	21.4 30	3.6 5	5.0 7	1.4 2	4.3 6	2.1 3	2.1 3	2.1 3	100.0 140
전체	29.7 598	26.6 535	19.5 393	5.2 104	3.4 69	3.2 64	2.6 53	1.8 36	3.5 70	4.6 92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여성기업인들은 남성과 경영활동을 비교할 때 ‘비슷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7.0%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불리하다’는 비율이 35.4%, ‘유리하다’는 비율 7.6%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여성 기업인들이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42.3%로 가장 높은 것이 다르게 나타났고 나머지 학력에서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9> 남성 경영인과 기업경영활동 비교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남성 경영인들과 비교하여 여성기업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사, 자녀 양육 병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사회적 편견’(23.8%),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23.1%),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8.0%),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6.9%), '부하직원 통솔'(6.2%) 등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사, 자녀 양육 병행'이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반면,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 등은 고학력일수록 불리하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여성기업인들이 스스로 남성기업인들에 비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심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65.2%)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일단 신용을 얻으면 끝까지 신용을 얻을 수 있다'(16.0%), '사회활동 때문에 불필요한 간접비를 줄일 수 있다'(12.9%) 등으로 나타났다.

<표 17> 여성기업인으로서 불리한 점

(단위 : %, 명)

	가사, 자녀 양육 병행	사회적 편견	남성 중심의 접대 문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여성기업인 무시	남성위주의 업계에서 네트워크 부재	부하직원 통솔	기타	전체
고졸	34.6 405	23.8 278	21.6 252	7.7 90	6.2 72	5.7 67	0.4 5	100.0 1169
전문	30.8 107	25.9 90	23.6 82	7.2 25	6.1 21	6.3 22	0.0 0	100.0 347
대학	29.4 194	23.3 154	24.7 163	8.3 55	7.4 49	6.5 43	0.3 2	100.0 660
대학원	23.1 43	21.5 40	25.8 48	9.7 18	10.8 20	8.1 15	1.1 2	100.0 186
전체	31.7 749	23.8 562	23.1 545	8.0 188	6.9 162	6.2 147	0.4 9	100.0 2362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자금조달을 할 때 여성기업인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점은 '담보부족'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대출한도 부족'이 15.4%, '고금리'가 14.5%였고 금융기관 이용시 애로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8.5%나 되었다.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는 것'고 응답한 비율은 5.7% 였는데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의 여성기업들이 대출, 대학원 학력의 여성 기업인들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18> 자금조달시 금융기관 이용상의 애로점

(단위 : %, 명)

	담보 부족	대출한 도부족	고금 리	신용보증 기준의 엄격함	여자라서 신용도 낮게 평가	단기 대출기 간	로비, 접대문 제	꺾기 관행	없음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22.3 271	15.3 186	14.7 179	12.2 148	6.1 74	3.8 46	1.5 18	1.0 12	19.3 234	3.8 46	100.0 1,214
전문	22.9 74	17.3 56	12.4 40	11.1 36	7.1 23	5.6 18	2.2 7	0.6 2	15.5 50	5.3 17	100.0 323
대학	21.9 138	15.1 95	14.9 94	13.5 85	4.6 29	3.5 22	1.9 12	1.7 11	18.1 114	4.6 29	100.0 629
대학원	23.1 36	13.5 21	14.7 23	7.1 11	4.5 7	5.8 9	2.6 4	2.6 4	19.9 31	6.4 10	100.0 156
전체	22.4 519	15.4 358	14.5 336	12.1 280	5.7 133	4.1 95	1.8 41	1.2 29	18.5 429	4.4 102	100.0 2,322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정부의 기업지원활동지원 제도 중 여성기업인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제도는 전체 여성기업인의 47.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자금지원 제도’였고 나머지 제도는 ‘세제지원 제도’(27.7%), ‘기술지원 제도’(26.7%), ‘정보화 지원제도’(25.7%), ‘수출지원 제도’(21.4%) ‘판로지원 제도’(18.6%) 순서로 많이 알고 있었고 인지 비율은 30%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제도 인지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정부의 기업활동지원 제도 이용률은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자금지원 제도’로 전체 여성기업 중 10.2%가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세제지원 제도 3.3%, 정보화지원 제도 2.9%, 기술지원 제도 2.4%, 판로지원 제도 0.4% 순서로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지원활동 지원 제도 이용 면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이용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었다.

여성 기업인들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확실한 수요처 확보’(43.9%)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안정적인 인력확보’(22.5%), ‘틈새시장 진출’(13.1%), ‘원활한 자금 조달’(11.9%), ‘기술개발’(8.1%) 등을 차례로 많이 응답하였다. 기업 경영성과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확실한 수요처 확보’, ‘안정적인 인력확보’에 많이 답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 애로점으로 답한 것이 ‘판로개척’과 ‘인력확보’인 것을 감안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여성 기업인은 앞서 정부에 바라는 지원제도로 ‘경영 및 기술지도’를 세 번째로 많이 원하고 있었다.

<표 19> 경영 성과 요인

(단위 : %, 명)

	확실한 수요처 확보	안정적인 인력확보	틈새시장 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기술개발/ 특허보유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42.6 384	22.5 203	14.6 132	12.5 113	6.9 62	0.9 8	100.0 902
전문	39.8 96	21.2 51	14.1 34	17.0 41	7.5 18	0.4 1	100.0 241
대학	48.5 235	23.5 114	10.5 51	8.9 43	8.5 41	0.2 1	100.0 485
대학원	43.2 60	20.9 29	10.1 14	9.4 13	15.8 22	0.7 1	100.0 139
전체	43.9 775	22.5 397	13.1 231	11.9 210	8.1 143	0.6 11	100.0 1,767

주 : 복수응답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부도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여성 기업인의 79.5%가 '부도난 적이 없다'고 하였고 13.5%는 '부도난 적은 없지만 부도위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다. 부도를 경험한 여성기업인들의 부도 횟수는 '1~2번'이 가장 많았다. 학력별로는 고학력일 수록 '부도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0> 창업 이후 부도 경험 여부

(단위 : %, 명)

	부도난 적이 없다	부도난 적은 없지만 부도위기 경험한바 있다	1-2번 부도	3-4번 부도	5번 이상 부도	기타 (무응답)	전체
고졸	77.4 821	14.9 158	4.1 43	1.3 14	1.2 13	1.1 12	100.0 1,061
전문	78.7 210	14.2 38	2.2 6	2.2 6	0.7 2	1.9 5	100.0 267
대학	83.3 455	10.3 56	3.7 20	0.4 2	0.4 2	2.0 11	100.0 546
대학원	82.1 115	14.3 20	0.7 1	0.7 1	0.0 0	2.1 3	100.0 140
전체	79.5 1,601	13.5 272	3.5 70	1.1 23	0.8 17	1.5 31	100.0 2,014

자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3 여성기업실태조사』 원자료.

4. 심층면접 조사 개요

가.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선행단계로 여성창업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창업가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성 기업가들의 실태를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인터뷰가이드를 준비하여 여성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지식기반 산업 즉,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 창업기업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표집은 여성기업명부를 통해 추출하였는데, 창업기업 성장단계별(창업초기, 성장기, 성숙기) 여성기업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하여 면담에 동의한 여성 기업가 21명에 한하여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조사는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총 2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의 경험을 제한된 시간 내에 가능한 풍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조사지를 활용하여 피면접자가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조사내용

본 조사연구는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활동을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창업기업가 학력 및 경력, 창업배경 및 준비과정, 창업성공요인 등을 조사하였다<표 21 참조>.

<표 21> 면담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창업자 및 창업관련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혼인상태 등) · 귀사의 업종 및 주요품목 · 창립년도 · 창업 전 취업경력 및 경력년수 · 창업전 직장의 회사형태 및 업종
기업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 수(성별 비율, 비정규직 활용도 등) · 매출액 및 순수익
창업활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준비기간 및 준비내용 ·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 창업자의 경영능력 · 초기자본금 및 자금확보시 애로사항 · 창업초기와 경영시 문제점 · 환경요인, 컨설팅 지원분야 · 창업성공요인 및 성공적인 창업모델
창업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프로그램 인지도 및 만족도 ·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수는 총 21명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의 여성 기업가 8명,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 기업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표 22>에 나타나 있다.

<표 22> 면담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수)	백분율(%)
지 식 기 반 제 조 업 (N=8)	연령	36세 ~ 40세	3	37.5
		46세 ~ 50세	4	50.0
		51세 이상	1	12.5
	학력	고졸이하	5	62.5
		대학교 졸업	3	37.5
	전공	상경계	2	25.0
		인문사회계	1	12.5
		기타	5	62.5
	혼인여부	기혼	6	75.0
		이혼/사별	2	25.0
	창업전 직장의	대기업	2	25.0
		중소기업	3	37.5

	회사형태(*)	개인기업 · 자영업	2	25.0
		교육공무원 · 교수	1	12.5

구 분			빈도(수)	백분율(%)
지 식 기 반 서 비 스 업 (N=13)	연령	30세 미만	2	15.4
		31~35세	3	23.1
		36~40세	4	30.8
		41~45세	1	7.7
		46~50세	3	23.1
	학력	전문대졸업	1	7.7
		대학교졸업	8	61.5
		대학원(석사)졸업	4	30.8
	전공	상경계	5	38.5
		인문사회계	5	38.5
		예체능계	3	23.1
	혼인여부	미혼	5	38.5
		기혼	8	61.5
	창업 전 직장의 회사형태(*)	대기업	2	15.4
		중소기업	7	53.8
		개인기업 · 자영업	2	15.4
		연구소	1	7.7
		기타	1	7.7

(*) 복수응답 가능

먼저 창업 당사자의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46세~50세가 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6세~40세가 3명, 51세 이상이 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6세~40세가 4명, 31세~35세, 46세~50세가 각각 3명의 순으로 나타나 지식기반 제조업보다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창업하는 여성기업가가 통계적으로 더 젊게 나타났다. 창업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고교졸업자가 5명, 대학교 졸업자가 3명으로 나타난데 반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자가 8명, 대학원 석사졸업자가 4명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이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뷰에 동의한 모든 여성 기업가의 경우 창업 전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창업 전 근무회사의 형태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3명이 중소기업에 근무했었으며 대기업에 근무한 경우는 2명, 개인기업 · 자영업에 근무한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이 7명, 대기업과 개인기업 · 자영업이 각각 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혼인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기혼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미혼자가 5명 기혼자가 8명으로 나타났다.

라. 조사 사업체의 현황

지식기반 제조업체의 조사 대상 여성 창업자의 회사형태는 개인사업체 형태가 6개(75.0%)로 나타났으며, 주식회사는 2개(25.0%)로 나타나 조사 대상 여성창업자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기업체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이는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싶어도 4대 보험과 국민연금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도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회사로 변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표 23> 지식기반 제조업의 조사 사업체 현황

구 분		빈도(수)	백분율(%)
회사형태	개인사업체	6	75.0
	주식회사	2	25.0
창업년도	1991~1995년	1	7.7
	1996년~2000년	4	30.8
	2000년 이후	8	61.5
자본금 규모	5천만원 미만	3	37.5
	5천만원~1억원 미만	3	37.5
	1억원~2억원 미만	2	25.0
초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1	12.5
	5천만원~1억원 미만	3	37.5
	1억~2억원 미만	1	12.5
	2억원 이상	3	37.5
현재 매출액 (2003)	1억원~5억원 미만	2	25.0
	5억~10억원 미만	2	25.0
	10억~20억 미만	3	37.5
	20억 이상	1	12.5
창립년도의 종업원 수	10명 미만	5	62.5
	10~20명 미만	2	25.0
	30명 이상	1	12.5
현재 종업원수 (2004)	10명 미만	5	62.5
	10~20명 미만	2	25.0
	20~30명 미만	1	12.5

지식기반 제조업의 창업년도는 2000년 이후 창업한 여성창업자가 61.5%(8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996년~2000년 사이에 창업한 여성기업이 30.8%(4개)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창업자의 창립년도 종업원 수는 1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여성창업자가 5개로 62.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기준 종업원 수 역시 10명 미만인 업체가 5개로 나타나 직원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식기반 제조업체 조사 대상 여성기업의 초기 자본금 수준은 5천만원 미만 또는 5천~1억원 미만이 각각 37.5%(3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매출액규모를 살펴보면 5천에서 1억원 미만 수준이 3개 회사로 37.5%를 나타내고 있으며 2억원 이상의 초기매출액을 보이고 있는 회사도 37.5%(3개)로 나타났다. 2003년 작년기준 현재 매출액을 살펴보면 10억~20억 미만수준의 회사가 3개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창업자의 회사형태는 주식회사 형태가 11개개(84.6%), 개인사업체 형태가 2개(15.4%)로 나타나 제조업체와 달리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주식회사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여성창업가의 종업원 수에 대해 살펴보면 창립년도시에는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업체가 11개로 84.6%의 비율을 보였으며, 2004년 기준 현재 종업원 수 역시 창립 때와 마찬가지로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직원규모 측면에서 본다면 지식기반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조사 사업체 현황

구 분		빈도(수)	백분율(%)
회사형태	개인사업체	2	15.4
	주식회사	11	84.6
창업년도	1995년~2000년 미만	4	50.0
	2000년 이상	4	50.0
자본금 규모	5천만원 미만	6	46.2
	5천~1억원 미만	3	23.1
	1억원~2억원 미만	2	15.4
	2억원~3억원 미만	1	7.7
	3억원 이상	1	7.7
초기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	30.8
	5천~1억원 미만	7	53.8
	1억원~1억 5천만원 미만	1	7.7
	1억 5천~2억원 미만	1	7.7

<표 24>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조사 사업체 현황(계속)

구 분		빈도(수)	백분율(%)
현재 매출액 (2003)	1억원~5억원 미만	7	53.8
	5억~10억 미만	3	23.1
	20억 이상	3	23.1
창립년도의 종업원 수	10명 미만	11	84.6
	10~20명 미만	2	15.4
현재 종업원수 (2004)	10명 미만	11	84.6
	10~20명 미만	2	15.4

조사 대상 여성기업의 초기 자본금 수준은 5천만원 미만인 업체가 46.2%(6개), 5천~1억원 미만의 업체가 23.1%(3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기 매출액규모를 살펴보면 5천에서 1억원 미만이 7개(53.8%)회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3년 작년기준 현재 매출액을 살펴보면 1억~5억원 미만 수준의 회사가 7개(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창업자의 자질

직장생활의 경험여부는 여성들이 창업을 할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아래 <표 25>는 창업과 이전 직장에서의 얻게 된 전문지식 및 경력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표 25> 창업과 전문지식 및 경력과의 관계

구 분		빈도수	백분율(%)
지식기반 제조업	같은 업종	4	50.0
	비슷한 업종	2	25.0
	전혀 무관	2	25.0
지식기반 서비스업	같은 업종	6	46.2
	비슷한 업종	2	15.4
	전혀 무관	5	38.5

<표 25>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조사대상자 모두 창업 전 취업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창업한 업종이 과거의 직장과의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50.0%(4개)이며 비슷한 업종의 경우는 25.0%(2개), 그리고 전혀 무관인 경우는 25.0%(2개)로 총 75.0%가 자신의 직장경력 과 창업한 업종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 48.2%(6개), 비슷한 업종이 15.4%(2개)로 나타났으며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로 창업한 경우도 38.5%(5개)로 나타났다. 이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성상 기술중심의 아이템을 가지고 숙련된 전문기술을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아마도 기술보다는 폭 넓은 사업경험을 토대로 얻기 된 기회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같은 업종 그리고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한 여성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이전 직장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창업 시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한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저는 소규모 광고기획사에 디자이너로써 입사를 한 후 5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저는 디자이너로써의 업무 외에도 마케팅과 홍보분야의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였는데, 이때 쌓은 경험은 창업 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이때 알게 된 사람들 역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서 많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A 마케팅 & 미디어 업체)”

2) 창업 준비과정 및 내용

벤처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창업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철저한 창업과정의 준비는 기업에게 사업기회를 주며 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총 3단계 즉, 1단계 ‘창업준비기’, 2단계 ‘회사설립기’, 3단계 ‘개업준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의 제 1단계 ‘창업준비기’는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을 우선 선정하는 일부터 이루어진다. 업종을 선정할 때에는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인지, 고정설비투자가 적은 업종인지, 기

술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업종인지, 자금조달가능성은 충분한지, 시장에서 수요의 증가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업종선택이 이루어지면 그 선정업종의 성공여부를 사전에 분석하는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단계 ‘회사설립기’는 타당성이 입증된 아이디어가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당관청에서 법적인 인·허가 등을 받으며,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형태로 사업주체를 결정하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된다. 3단계는 ‘개업준비단계’로 회사를 운영하는 관리규정 제정 및 조직구성을 한다. 업종의 선택은 평소의 관심이 있던 분야이거나 전공, 경험, 취미가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와 과거의 직장생활 때의 경험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총 4가지 사례(교육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회사, 디자인 업종)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전공과 과거 직장생활 때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창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사항은 없었다.

“(창업준비 과정과 관련)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금융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가 저하고 맞지 않아서 도저히 회사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대학시절부터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 취미삼아 공부를 조금씩 했었는데, 이를 살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공부를 마친 뒤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를 했지요.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창업에 대한 욕심도 생기게 되었구요. 또 우연찮은 기회에 회계·재무쪽에 전공하시는 분이 자금을 지원할테니 같이 창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서 현재 사업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H 디자인 회사)”

그러나 경험과 지식이 사업으로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례에서는 사업아이템 선정을 위해 시장동향을 검토하거나 창업 시 필요한 인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는 인맥교류활성화 작업을 시행하거나, 사무실 임대와 관련된 입지선정 및 절차조사를 하거나, 창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을 준비하기 위해 업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준비 내용과 관련) 저는 어떠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시각 · 포장 디자인 쪽으로 창업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 업종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였고 전공과도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학원에 등록하여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교육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아이템을 실행화 시키기 위해 시장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고객니즈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동향 및 창업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노력은 창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디자인 회사)”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공 및 과거 직장생활 때의 경험이 사업으로 연결된 사례가 5개, 기타사례가 3개였다. 구체적인 창업준비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에도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기타사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창업준비내용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타사례의 창업준비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창업업종과 관련된 자료 검색, 입지선정을 위한 조사, 창업하기 위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창업동기는 창업 자체의 성공여부 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기업의 특성이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조사에서는 여성 기업가들이 창업 동기를 유인(pull)요인과 방출(push)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조사 결과,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유인 요인보다는 방출 요인이 창업을 하게 되는 동기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 8개의 지식기반 제조업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남편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로 인해 파산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전직장에 대한 불만, 소득에 대한 불만, 실업, 독립성, 자아실현 등이 창업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창업동기와 관련하여) 저희 남편은 서니전자에서 10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자부품과 관련하여 탁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IMF를 맞

게 되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 사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의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하기로 결심하고 개인사업체를 차려 운영했지요. 그러나 자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도를 맞게 되었고 이후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남편은 이미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 취업도 할 수 없었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앞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의 경험과 지식을 썻힐 수 없다고 판단했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 다른 쪽은 사실 생각해볼 엄두도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이름(현 여성 CEO)으로 창업을 한 거예요. 물론 저도 사업에 가담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저의 남편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사례 4 : F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여성기업가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창업 혹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기업가의 창업의 동기적 특성으로는 자아실현 욕구와 독립성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가적 충동, 사회적 지위와 명예, 소득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전 직장에 대한 불만과 소득 및 고용조건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요인은 창업의 요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창업동기에 있어서 방출 요인 보다는 유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기와 관련하여)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었을 뿐더러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그룹 컨트리 클럽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회사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 1년에도 수차례 예절교육과 매너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저의 월급이 40만원 정도인데 반해 한번 강의를 하고 난 후 강사가 받는 월급이 저의 한 달치 월급이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지요. 내가 꼭 저 일 즉,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리라고요. 하지만 단순히 소득에 대한 불만 때문에 창업을 하고자 결심 한건 아닙니다. 소득은 제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유에 단지 10분의 1도 안되는 이유였을 뿐이죠. 저는 구속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제 사업을 직접 내가 경영해 보리라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죠. 창업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우연하게도 이때 그 사건이 저에게 자극을 주어 결정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 같습니다(Y 교육서비스업체)

본 연구조사에서는 창업유형을 기술창업과 기회창업으로 구분하였다. 조사결과, 지식기반 제조업체와 지식기반 서비스업체의 여성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유형의 창업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6 참조>.

<표 26> 창업유형

구분		업종		전체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창업유형	기술창업자	7	3	10
	기회창업자	1	10	11
전체		8	13	· 21

그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회사의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창업자 이었음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 회사, 번역업체, 산업디자인 업체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회창업자 였음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종별로 창업의 유형이 확실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4) 창업 성공요인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지속적인 견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성공한 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성공요인 및 성공모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은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여러 다양한 요건들을 꼽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표 27 참조> 같다.

<표 27> 창업 성공요인

1. 기업가 정신(정신력, 신뢰성, 의지력 등)
2. 창업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3. 시장 조사 및 철저한 사업준비성(시장 예측, 고객욕구 분석 등)
4. 인맥형성 및 활용
5. 자본력
6. 우수한 사업아이템
7. 인재확보 및 관리
8. 기술력, 품질개선
9. 투명한 경영 및 조직관리
10. 고객신뢰와 만족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시장분석 및 고객수요와 욕구 등을 미리 예측하여야 하며, 자신의 사업모델의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창업을 시작해야 한다(R 헤드헌팅 회사).”

“창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템만 우수하다고 하여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가의 인내력, 끈기, 성실성 등이다. 왜냐하면 주위에 창업한 여성 사업가들을 보면 끈기가 없어서 한 이삼년 하다가 더 이상 못 버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S 전자자동제어 회사).”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과 지식은 내가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B 화학품 제조업체)”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조사대상자들 대부분은 창업 성공요인으로 첫째, 기업가 정신을 꼽았으며 둘째,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타 성공요인으로 마케팅, PR, 판로 확보 등을 언급하였다. 아래 <사례 10>는 교육서비스 업체의 J 기업가의 창업성공모델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사례) 교육서비스 업체의 Y 창업가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

목표가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음. 따라서 장
· 단기 목표를 세밀히 수립하였음.

둘째, 철저한 사업준비성

시장분석 및 고객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의 성과여부를 판단함. 그리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경영학,
광고학, 멀티미디어, 사회과학 등에 대한 꾸준히 공부함.

셋째, 같은 업종의 인맥확보

지속적인 인맥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강의 등에 참여함. 그리고 커뮤니티를 운영관리
하여 인관관계의 폭을 넓힘.

넷째, CS(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제공한 교육서비스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고객욕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음

다섯째,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를 함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
단됨.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창업관련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 수행하였음. 건강관리도 성공의 열쇠라고 판단하여 건강관리에도
중점을 둠

여섯째, 비전

사업의 성공여부는 경영자 혼자만의 몫이 아님. 우수한 인력의 도
움이 있어야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를 위한 비전을
확고히 하여 종업원들의 동기부여를 고취시켰음.

바. 소결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자 여성창업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여성기업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기업가의 창업동기를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2곳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은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창업을 하게 되는 즉,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방출 요인(이전직장에 대한 불만, 소득, 실업, 가족걱정 등)과 유인 요인(독립성, 자아실현, 기업가 충동)이 창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여성기업가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기위해 창업 혹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방출요인이 창업을 하게 되는 주된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과 전문지식 및 경력정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75.0%가 창업한 업종이 과거의 직장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로 나타났으며,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는 63.6%,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로 창업한 경우는 38.5%(5개)로 나타났다. 이는 업종의 특성상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중심의 아이টে을 가지고 숙련된 전문기술을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는 폭 넓은 사업경험을 토대로 얻기 된 기회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창업성공요인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성공요인으로 우선 기업가 정신을 꼽았으며 이외에 창업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 시장 조사 및 철저한 사업 준비성, 인맥형성 및 활용, 자본력, 우수한 사업아이템, 인재확보 및 관리, 기술력, 품질개선 등을 들었다.

IV. 국내외 여성창업 지원정책

1. 국내의 창업지원정책

가. 창업기반구축정책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여성기업의 판로개척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란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약한 예비창업자나 신규창업업자들을 입주시켜 작업공간 제공, 기술지도 및 사업계획구상, 자금지원 등 창업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는 기관(이상석·최종호, 2001: 161)을 지칭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민간 등에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창업공간과 시설설치비를 지원해주고, 공동으로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등을 포함해서 창업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 자료실 및 세미나실, 회의실을 운영하고, 초고속 국가망을 통한 IP부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을 통한 상담체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졸업 업체를 사후관리함으로써 여성창업자들의 창업성공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 서울(강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수원,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등 현재 전국에 14개소의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표 28> 연도별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

연 도	예 산	입실수 (매년12월기준)	졸업업체	퇴거업체
2000	3,500,000천원	75/84	9	21
2001	2,700,000천원	142/148	18	32
2002	2,400,000천원	158/171	38	39
2003	1,400,000천원	149/171	47	33
2004	1,400,000천원	130/135(6.30기준)	28	18

자료: 여성경제인협회 사업현황

나. 창업자금 지원정책

리더십과 자율성 혹은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인내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업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는 대출담당자들의 차별적 편견 때문에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자금지원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은 널리 지적되어 왔다(Hisrich & Brusch, 1987; Humphreys & McClung, 1981). 창업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창업이전의 경험이나 연령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창업자가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데 있어서 남성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자금대출을 거부당한 뒤의 대처방식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창업주들에 비해서 여성창업주들의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또 다른 자금대출기관을 물색하는데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Buttner & Rosen, 1992). 그러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자금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융자를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창업자금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04년도에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자의 채권확보별 현황을 보여주는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증서나 부동산담보가 있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의 경우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같은 담보물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자본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29> 창업자금지원자의 채권확보별 현황

(2004년 2월 기준)

채권유형	업체수	%	대출액	%
보증서	208	70.5%	5,263	52.6
부동산담보	67	22.7%	3,922	39.2
신용대출	20	6.8%	815	8.2
합계	295	100	9,999	100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과 일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창업자금지원시에 여성을 우대하는 간접적인 여성창업지원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업자금시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지원정책이 있다. 소상공인센터를 통해서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업 창업희망자 및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소액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금확보력이 약한 소규모 창업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의 경우 3,792억원이던 소액 신용보증 총액은 2004년도에는 4,00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신용보증을 의망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상담과 서류를 평가해 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자금을 지원받도록 추천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신청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여성창업지원시 우대정책으로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가산점 10점을 부여해주거나 단체수의계약의 물량배정시 가산점 2점을 부여해주는 정책이 있다.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창업지원정책은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정책으로 나뉘어지는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또는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정책이 취약계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은 지식기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저소득여성가장생계형창업자금의 경우 예산은 20억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여성기술인력창업자금의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표 30> 현행 국내의 여성대상 창업자금지원정책(2004년 1월 현재)

관할부처	사업명	융자규모	융자대상	자금지원 대상자	융자조건
중소기업청	중소벤처창업자금	2,700억원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남여공통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한도액: 10억원 금리: 5.9% 내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창업및 경영자금	2,500억원	소상공업창업 자	남여공통 (여성에게 가산점 부여)	한도액: 5천만원 금리: 5.9%
여성부	여성가장창업자	30억원	저소득여성가	여성대상	한도액: 5천만원

	금	100억원	장	여성대상	금리: 3%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여성전문기술 인력		한도액: 1억원 금리: 4.5%
근로복지공단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	150억원	실직여성가장 미혼여성가장	여성대상	한도액: 1억원 금리: 5.5%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지원 대상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미장원 음식업 소규모의 영세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문여성인력의 지식이나 이전의 조직내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인 정보통신부문은 전체 창업자금 지원대상기업의 10.6%, 디자인, 인테리어는 8.65, 출판, 인쇄, 광고는 7.2%로 비중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여성부의 창업자금 지원대상 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업종별	자금추천	%	자금대출	%
어린이 놀이방	34	6.8	22	7.5
미장원	134	26.9	71	24.1
음식업	57	11.4	26	8.8
IT(정보통신)	53	10.6	25	8.5
공인중개업	32	6.4	26	8.8
학원업(보습)	10	2.0	9	3.1
디자인, 인테리어 등	43	8.6	22	7.5
예술학원	35	7.0	15	5.1
출판, 인쇄, 광고 등	36	7.2	21	7.1
전문직(약사 등)	11	2.2	4	1.4
기타	54	10.8	54	18.3
계	499	100	295	100

* 2004년 2월 현재.

다. 창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정책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비해서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정책

※ 여성가장훈련(담당부처: 노동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훈련은 취업·창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의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훈련수당 지원하고 있는 제도이다.

- 주요 훈련 직종 : 조리, 미용, 꽃방창업, 베이비시터, 텔레마케터 등
- 훈련대상자:

-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미만이거나, 장애·질병·군복무·학교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근로능력이 없는 자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종전에 여성가장훈련이나 노동부지원 타 훈련을 수강했던 자는 3회까지만 훈련 가능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국고지원: 훈련수당 월5~40만원

내용: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가족수당 1인당 5만원(3인 한도) 및 가계보조금 15만원(본인 외 세대원이 모두 부양가족인 자)

- 훈련기관: 여성성인력개발센터, 학원, 공공훈련기관 등 여성가장훈련이 개설되어 있는 훈련기관

※ 여성창업강좌 (담당부처: 중소기업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여성창업자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창업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 훈련대상자: 여성 예비창업자와 신규창업자, 그리고 전업희망자
- 훈련내용: 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등을 통해 창업세미나, 창업요령, 마케팅,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강의
- 강의회수: 1999년 5회를 시작으로 총 357회에 걸쳐 강좌를 개최 - 참가대상: 19,000명의 예비·신규 여성창업자

※ 경영·정보화 연수 (담당부처: 중소기업청)

경영·정보화 연수 지원은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경영능력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여성기업 임직원, 여성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연수와 정보화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 경영혁신교육, 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정보화 연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EDI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65회의 연수에 총 51,000여명이 참가하여 경영능력 향상 및 정보화 재교육을 받는 등 여성기업임직원 및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 자금전략 교육(5회) 및 투자마트 개최(10월)를 통한 양질의 자금유치 지원
- 경영혁신을 위한 CEO 경영·정보화 연수실시(22회)

<표 32> 전체 여성창업강좌 참여 현황(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단위: 1000원, 명

연 도	예 산	참 가 자
1999-2000	1,500,000]	(162회) 11,967명
2001	600,000	(105회) 4,260명
2002	900,000	(113회) 4,295명
2003	650,000	109회) 3,760명
2004	650,000	(10회) 321명

<표 33>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개설한 창업강좌의 연도별 참가인원 및 강좌내용

연 도	참 가 자	전문강좌 내용
2000	(25회) 572 명	파티플래너창업과정, 선물포장창업과정, 외식업창업과정, 음식업창업강좌, 아트플라워창업과정 전자상거래과정, 아로마테라피스트창업과정, 베이비시터창업과정, 와인샵창업과정, 옷수선집창업과정 핸드페인팅창업과정, 프랜차이즈창업과정, 인터넷쇼핑몰창업과정, TAKE-OUT창업과정, 수입실무와 패션마케팅창업과정, 창업시뮬레이션과정 한지공예창업과정 등
2001	(25회) 1,511명	
2002	(22회) 1,631명	
2003	(55회) 2,003명	
2004	(9회) 273명	

여성벤처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 여성창업강좌(담당기관: 여성벤처협회)

<표 34> 현재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무료교육과정

과 목 명	구 분	강 좌 내 용
이랜서기초	교양과목	이랜서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전문 여성으로서의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왜 나는 일해야 하고— 나의 직업비전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

창업설계	교양과목	창업 기획 분야에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여성창업 경향 유망 아이템, 창업접근법, 상권분석, on-off line의 좌화등 여성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창업 이론을 실제 현장의 예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과정
쇼핑몰 운영자	교양과목	쇼핑몰 운영자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전자상거래 현황 및 비전을 살펴보고 쇼핑몰의 아이템 선정 방법 및 관련업체선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쇼핑몰 기획방법 및 프로모션 방법들을 살펴보는 과정
마케팅 홍보	전문과목 (1회 1과목)	마케팅/홍보 분야에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마케팅의 개념 및 방법의 변화와 마케팅 기획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기업의 마케팅 비용절감을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을 개발과 다양한 프로모션 방법들을 살펴보는 과정
과 목 명	구 분	강 좌 내 용
CS강사	전문과목	CS강사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CS강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CS강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세와 이미지 등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웹 PD	전문과목	웹 사이트의 개발에서부터 웹 사이트 운영에 이르기까지 웹 PD가 알아야 할 지식과 방법론을 웹 사이트 개발 운영과정에 따라 하나하나 하나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 과정
컨텐츠	전문과목	컨텐츠 매니저로 활동할 이랜서를 위해 디지털컨텐츠와 디지털 콘텐츠
매니즈먼트	전문과목	매니즈먼트의 개념을 소개하고, 디지털컨텐츠매니저가 할 일은 무엇인지, 다양한 컨텐츠 유통방법 등을 살펴보는 과정

* 여성벤처협회에 개설된 유료 창업강좌

강좌명	수강료 및 강의횟수	대상자	강좌내용
(신)쇼핑몰창업과정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용역 예비창업자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예비창업자를 위한 실무교육
라이팅이랜서	11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글쓰기에 관심이 있고 글쓰기를 직업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	실제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잡지 글쓰기의 실문능력 증가
디자인커뮤니케이션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e-lancer에 관심이 있는 모든 디자이너 웹 사이트 개발자 및 창업희망자	웹 사이트 개발 시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배양
웹 카피라이팅	20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e-lancer에 관심이 있는 모든 여성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웹카피라이팅 방법과 실전능력 배양
비즈니스파워 PT	15강좌 (on-line 강의) 수강료: 20,000원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능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프레젠테이션 능력 개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창업교육

·후원: 재정경제부

교육내용

1차	1 주	인생지도 그리는 법/상권분석 및 입지선정(1)
	2 주	창업자의 조건(I)/상권분석 및 입지선정(2)
	3 주	창업자의 조건(II)/ 프랜차이즈로 창업하기
	4 주	창업 트렌드 분석 /프랜차이즈로 창업하기
2차	1 주	유망업종 관독법(3T)/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1)
	2 주	여성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2)
	3 주	여성창업환경분석/창업지원기관 탐방: 소상공인 지원센터
	4 주	여성창업 성공사례분석/소호창업 및 사례연구
3차	1 주	정보(컨텐츠)로 돈버는 방법(I)/소점포 마케팅 전략(1)
	2 주	정보(컨텐츠)로 돈버는 방법(II)/소점포 마케팅 전략(2)
	3 주	우리나라 유망업종 베스트 10/창업세무
	4 주	해외에서 뜨는 유망업종베스트 10/창업 관련 법률
4차	1 주	외식업창업/창업적성검사
	2 주	사례: BBQ, 해리피아/창업지원기관탐방(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3 주	소매업 창업/창업박람회 참관 및 정보수집
	4 주	사례: 손뜨개/창업자금조달방안
5차	1 주	서비스업 창업/점포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종업원 관리
	2 주	사례: 한복대여업, 윈더랜드/접객서비스 및 고객관리
	3 주	취미형 창업/소점포 인테리어
	4 주	사례: 토피어리, 패치워크/창업지원제도
6차	1 주	전자상거래 창업/부동산계약실무 및 상가임대차 보호법
	2 주	사례: 투걸즈/창업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3 주	창업투어(서비스업, 지식사업)/ 창업사업계획 발표회(1)
	4 주	창업투어(외식업, 소매업)/ 창업사업계획 발표회(2)

<표 35> 2004년도 여성기업지원예산(중소기업청)

(단위: 100만원)

사업명	예산규모		수행기관
	2003년	2004년	
여성창업활성화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1,400	1,40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창업 강좌 개설	650	65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100	100	여성경제인협회
합계	2,150	2,150	
여성기업 유망업종의 발굴 및 육성			
○ 여성기업패션전용관 운영	400	300	유통센터
○ 패션 및 귀금속 전시회 참가 지원	370	470	여성경제인협회
○ e-lancer 육성 지원	200	300	여성벤처협회
합계	970	1,070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여성벤처 투자촉진 지원	100	100	여성벤처협회
○ 경영·정보화 연수실시	200	20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개최	300	310	여성경제인협회
○ 국내유망업종 전시회 참가지원	300	260	여성경제인협회
○ 우수 여성기업제품 홍보 지원	300	300	유통센터
○ 해외시장개척단·연수단	150	18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벤처기업 사례발표	-	50	여성벤처협회
○ 여성기업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	-	60	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실태조사	130	-	
합계	4,600	4,680	

2. 해외의 창업지원정책

가. 창업자금 지원정책

미국은 1982년 중소기업혁신개발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 제정되었고, 연방 상무부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BA를 통해서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2003년의 경우 266, 667개에 달했으며, 대출을 받은 기업의 수는 60,000개에 달했다.

<표 36> SBA의 중소기업 대상 재정지원액 규모

	1999	2000	2001	2002	2003 (목표)	2004 (목표)
창업기업에 대한 대출	13,969	13,552	12,396	13,427	12,000	14,400
기존기업에 대한 대출	29,667	30,196	30,562	38,239	48,000	57,600
전체 대출기업수	43,636	43,748	42,958	51,666	60,000	72,000
대출액	\$ 9.5B	\$ 9.7B	\$ 9.1B	\$ 9.4B	\$ 9.5B	\$ 9.5B
창출된 일자리수	313,322	324,964	305,509	370,000	266,667	323,333
15,000\$이하 대출받은 기업수	26,464	26,227	27,107	33,185	38,538	46,080
보조금(Subsidy) 비용	\$ 132,410	\$ 113,568	\$ 106,756	\$ 129,094	\$ 85,662	\$ 95,162
행정비용(추정)	\$ 53,059	\$ 47,291	\$ 42,039	\$ 32,189	\$ 32,193	\$ 32,199
총비용	\$ 185,469	\$ 160,859	\$ 148,795	\$ 161,283	\$ 117,855	\$ 127,361
각 대출당 소요된 행정비용	\$ 1,216	\$ 1,081	\$ 978	\$ 623	\$ 536	\$ 477
각 대출당 소요된 총 비용	\$ 4,250	\$ 3,677	\$ 3,463	\$ 3,121	\$ 1,964	\$ 1,769

* Subside에는 a) loan guaranty, b) STAR program, c) DELTA program을 위한 보조금이 포함됨.

미국의 중소기업청(SBA)은 여성 경영인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주목하여, 여성들이 경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독특한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한 제도적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현재 SBA산하에 Women's Business Center(WBC)가 미국 전역에 6개, 주별로 15개의 지부가 있는데, Women's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 여성창업의 시작에서 창업과정, 재정지원, 시장개척,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액중 여성소유기업에 지급된 자금액수의 변화추이를 보여주는 다음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전체대출자그중 여성소유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표 37> SBA의 중소기업자금지원액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

연도	SBA의 대출자금 건수	대출자금 총액	여성소유 기업에 지급된 대출자금 건수	여성소유기업에 지급된 대출자금 총액	전체대출자금 중 여성소유기업 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건수기준)	전체대출자금 중 여성소유기업 에 대한 대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금액기준)
2000	43,817	10,614,457,568	9,206	1,736,294,000	21.0	16.4
1999	43,683	10,247,473,899	9,470	1,649,496,000	21.7	16.1
1998	42,340	9,118,743,684	10,271	1,574,114,602	24.3	17.3
1997	45,380	9,586,537,920	10,077	1,484,350,033	22.2	15.5
1996	45,991	7,791,660,804	10,740	1,298,095,351	22.8	16.7
1995	55,804	8,336,379,160	13,396	1,457,106,486	24.0	17.5
1994	36,438	8,261,784,143	7,125	1,181,952,084	19.6	14.3
1993	26,754	6,810,279,527	3,799	725,795,075	14.2	10.7
1992	24,211	5,983,393,433	3,279	579,748,303	13.5	9.7
1991	19,467	4,44,589,919	2,422	424,842,360	12.4	9.6
1990	19,128	4,208,064,742	2,530	453,688,033	13.2	10.8

자료출처: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ffice of Financial Assistance.

중소기업 관련 보조금은 개별 기업 사업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여성 경영센터(women's business centers) 등의 민간 비영리 기구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러한 센터들은 여성들의 경영 훈련이나 각종 상담, 그리고 여성 경영인들 및 사업경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여러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인 대출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 이때 대출은 중소기업청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청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이나 CDCs(Certified Development Companies)에서 제공한다.

WBC의 자금지원시 평가기준

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원자의 조직내경험의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의 상근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과거 조직에서의 경험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상담과 기술습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경우 - 지원자가 장기 혹은 단기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취득한 경우 - 과거 조직내에서의 위치,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경우 	20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별 인구구성 자료를 기초로 일정비율을 문화적, 언어적, 인종적 소수집단에게 할당 - 지원자는 경력자, 영어권의 미국인, 농공업 혹은 가내공업 경영자인지, 도시 혹은 농촌지역 거주자인지와 장애여부를 명시할 것 	10점
지원자가 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여성기업센터(Women's Business center)가 소재한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수, 인구구성, 여성소유의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지리적 필요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음. - 지역별 실업률, 기업활동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치, 빈곤층의 비율 및 인종적 불균형비 고려 	10점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는 기업확장과 신생기업의 창업시에 필요한 명확한 목표와 측정가능한 목표, 시기별 활동을 기술 - 5개년간의 시행계획 제출 - 계획서속에는 재정, 경영, 법률서비스, 시장조사, 정부와의 조달계약, 대출자금, 인터넷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원자는 계획서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안과 방법을 제출해야 함. 	30점
SBA와 다른 공동체나 중소기업관련조직과의 협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시에 WBC에서 요구하는 서비스가 51%이상 되어야 함. 	10점
재정적 안정성		20점
지리적 위치	제외지역: Delaware, Florida, Guam	10점

나. 창업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연방 상무부의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산하의 Women's Business Development Center에서 여성창업의 시작에서 창업과정, 재정 지원, 시장개척, 마케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1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

다. 현재 21주에 걸친 21강좌 프로그램 개설되어 있으며, 강좌는 성공한 여성기업인이나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된다. 창업희망자에게 실패를 극소화하고 성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프로그램	
The Business Council (여성기업인 연합회)	5년 동안 전일제로 일해 왔으며 연간 수입이 20만\$ 이상인 여성들로 구성된 저녁 모임.
The Round Table (원탁회의)	연간 총수입이 100만\$ 이상인 성공한 여성관리자에 대한 1년간의 후원 프로그램으로 월 1회의 저녁 모임에서 해당주제를 중심으로 토론.
Online Advantage Series	인터넷 마케팅과 경영훈련
Introduction to Business Ownership	기업경영자로서의 기술과 관심의 잠재력 개발
Marketing: Getting Results	판매력 강화
Grow Business Series	기업성장전략(전략계획, 리더십 개발, 기업관련법, 마케팅, 사무관련 기술, 재정관리, 자금조달)
Up and Running	21주의 프로그램을 년 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으로서 기업소유자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기업계획, 마케팅, 법률, 회계, 금융관계,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
The Bottom Line	중소기업경영자를 위한 재정 경영전략
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 Series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계약법, 판매전략 등

아울러 SBA에서는 ON-line상으로 중소기업을 시작하거나 육성하는 데 관심있는 여성 경영인들을 위한 정보 자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여 개국의 여성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한 달간 이용자수는 2000년의 200만 명에서 2003년에는 500만 명으로 증가했다(SBA, 2003: 59)

※ 참조: SBA에서 개설된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

- 창업계획 및 구상시 창업업종, 위치선정에 대한 상담.
-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방법 안내
- 창업과 관련된 법률과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 소기업경영전략 및 자금관리
- 창업시 대출받은 부채의 효율적인 상환방법
- 마케팅전략(시장분석, 판매전략, 판매촉진, 고객서비스)
- 재정관리 및 분석
- 소기업의 확대 및 성장전략에 대한 정보제공

다. 여성기업인의 판로확대정책

많은 여성기업들의 존속기간이 짧은 이유는 적절한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미국정부는 정부와의 조달계약시 중소기업의 생 산품,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정량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38>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조달계약 프로그램(Subcontracting Program)

	1999	2000	2001	2002	2003 (목표)	2004 (목표)
중소기업(Small firms)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40.4%	39.7%	39.0%	N/A	40.0%	40.0%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6.5%	6.7%	5.95%	N/A	5.0%	5.0%
여성소유기업 대상 조달계약총액의 비중	4.3%	4.7%	4.5%	N/A	5.0%	5.0%
Service Disabled Veterans	N/A	N/A	0.08%	N/A	3.0%	3.0%
프로그램의 추정비용	\$ 2,165	3,327	\$ 4,234	\$ 3,961	\$ 4,367	\$ 4,426

V. 요약 및 정책대안

1. 요약

□ 우리나라 여성창업의 특징은 영세 규모의 생계형 창업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여성적 산업'에의 창업 집중 경향이 여전히 높다.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기업의 업종분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지식집약적 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벤처창업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벤처창업자가 96.9%인 반면, 여성 벤처창업자의 비율이 3.1%에 불과하다(중소기업청, 2003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 여성 창업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창업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으며, 학력분포는 고졸이 가장 많았고, 창업전 경력은 가정주부가 가장 많았다.

○ 연령분포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고, 40대 34.4%로 여성 창업연령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창업 당시 학력분포는 고졸이 55.2%로 가장 많고, 대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28.2%, 13.3%였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기업인들의 계열별 분포를 보면, 사회계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연계 15.2%, 교육계 15.1%, 예체능계 11.1%, 인문계 10.5% 순이었다.

○ 창업전 경력은 가정주부가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생활자 20.7%가 많았다. 창업자의 학력별 경력분포를 보면, 전문대졸 이상은 급여생활자의 비율이 높았고, 고졸의 경우는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본 연구의 여성 창업기업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여성 창업기업가의 창업동기 및 창업유형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 창업동기의 차이는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였으며, 그 외 방출 요인(이전직장에 대한 불만, 소득, 실업, 가족걱정 등)과 유인 요인(독립성, 자아실현, 기업가 충동)이 창업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여성기업가들의 경우 대부분 본인 스스로 기업을 운영하기위해 창업 혹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 방출 요인이 창업을 하게 되는 주된 동기요인으로 나타났다.
- 지식기반 제조업의 경우에는 기술중심의 아이템을 가지고 숙련된 전문기술을 토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반면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는 폭넓은 사업경험을 토대로 얻기 된 기회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우리나라 여성창업 지원정책은 자금지원과 보육기능, 창업강좌 등으로 구분된다.

- 창업자금지원은 노동부(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자영업지원사업,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여성부의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과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이 있다.
- 보육기능 지원으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에 여성창업보육센터가 전국 14개소가 있으며, 입주공간과 시설설치비, 공동사무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 여성창업강좌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일반창업강좌, 전문창업강좌, 컴퓨터 강좌, 창업세미나 등)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경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2. 정책대안

가. 기본 방향

□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육성

-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업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여성 전문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창업인프라 확충
- 여성이 경쟁력이 갖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여성창업 지원 강화

□ 여성창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정책 발굴

- 여성창업 기업의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여성 창업자금 지원정책의 기조로 함
- 여성창업기업의 장기적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가진 여성기업의 지원 유도

□ 여성 창업가의 정보 및 자본에 대한 접근성 증대

- 정부, 대학, 민간 등에서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창업 교육프로그램을 대상별, 전공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네트워크화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액 중 여성창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액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여성 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의 여성기업을 위한 정부계 금융기관에서의 여성기업에 대한 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나. 정책대안

□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 예비창업자 양성 확대

-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산하의 '04년 현재 전국 14개의 여성창업보육센터를 '10년까지 30개로 확대

- 전국의 대학, 연구소, 지자체 산하의 신기술 창업보육센터에 여성 창업자의 입주를 확대하기 위한 우대 제도 마련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 예비 창업자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요건을 완화
- 여성창업보육센터에 전문지식을 갖춘 창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예비 창업자 및 보육센터를 졸업한 여성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기능 강화

○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여성창업자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경영지원체계 마련

- 여성창업가의 경영기반 확보를 위한 초기운영 자금 지원 및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지원
- 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얻고 기업경영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초기 여성 창업자들과 설립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여성기업인과 초기 여성 창업가와의 멘토링(Mentoring)제도를 업종별, 지역별로 구축

○ 여대생 창업경진대회(Business Plan Competition)를 통한 창업자금 지원

- 여대생 예비 창업자 또는 설립 후 1년 이내의 여대생 창업자(또는 팀)를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초기창업 자금을 지원함.

* UC Berkeley 대학에서는 대학생, 연구팀, 기업가 등을 대상으로 매년 'Business Plan Competition'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기술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매년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여성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와 창업시 창업후견인 지정, 경영지도 등의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여대생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한 예비 창업팀과 엔젤 투자가와 연계
-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여대생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준비 과정의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해 주는 창업 튜터링(Business Start-up tutoring)제도 마련
- 대학내 소액 투자가의 조합을 결성하여 여대생 예비 창업자와의 연계체제 구축

□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에 대한 중

합상담 창구 마련

- 창업 후 기업생존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창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확대
 - 창업 후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법률, 노무, 세무, 회계, 특허 등) 5명씩의 전문가단((가칭)여성기업 경영자문단)을 구성하여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시적 상담창구 마련
 - 상대적으로 인력과 정보, 자금에서 열위인 모든 여성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 문제 발생시 문제를 바로 상담받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방함.
 - 창업준비과정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부도, 기업정리(파산 등) 모든 기업과정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시킴.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서비스
 -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요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생존 및 성장과 관련되는 세무·회계, 기업정보화, 아이디어의 사업화, 설비와 기계, 위험에 대한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여성 기업인이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확장, 다변화를 계획했을 때 문제 해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상담해 줄 창구가 요구됨.
 - 여성기업인들의 기업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컨설턴트 파견

□ 여성 창업자금 및 여성기업 운영자금 지원

- 여성 공동창업자의 소규모 창업자금 지원
 - 여성들이 공동출자한 창업기업에게 각 개인에게 천만원 이하의 소액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공동창업자가 연대하여 매달 일정액을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
 - * 'Gram in Bank'제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소규모 여성 창업자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담보없이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각자 하루, 또는 한 달에 소액을 상환해 나가는 제도임. 대출받은 집단이 한꺼번에

여신관리가 되므로 건전한 신용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음.

○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창업 활성화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소규모 여성사업체들이 사업 아이디어와 시장 가능성 (거래실적 등)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례 보증 요건 마련
- 정부계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출 요건 완화)

○ (가칭) 여성기업인 100인 펀드(투자기금) 조성

- 성공한 중견 여성기업인 100인이 출자한 투자기금을 마련하여 여성 예비창업자의 'Business Plan'을 직접 평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금 마련
- 여성기업인 투자기금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추진 체제 구축
- 취약한 재무구조로 은행대출이 어려운 여성기업들에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전국 지회를 통한 저리의 소액(3천만원 이하) 운영자금 지원

참고문헌

권명중(2000).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12월 제22권 제2호.

문숙재·최자경(2001).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5권 1호.

박상문·이재희·이달환·배종태(2000).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3권 1호.

박윤재·윤현덕·김영수(2001). 한국의 창업여건과 활성화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9월, 제23권, 제3호.

박정기 외(2000). 창업과 취업전략도, 도서출판 대명.

빈봉식·박정기(2002).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

- 연구」 9월, 제24권 제3호.
- 송광선(2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3권 1호.
- 양현봉 · 송하율 · 김홍석(2002). 우리 나라 창업보육센터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1호.
- 양현봉(2002). 「중소기업의 구조전환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 이상석(2003). 여성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9월, 제25권 제3호.
- 전방지(1997). 중소기업과 여성: 창업과정의 성차.
- _____(2002). 여성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방식,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2호.
- 정성한 · 김해룡(2001). 소상공인 창업성공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9월, 제4권 제2호.
- 통계청(2002), 「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 _____(2003), 「2002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전국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3), 「2003 여성기업 실태조사」.
- 한정화 · 백윤정(2003), 여성벤처기업의 창업동기와 경영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 Buttner. E. H.(2001). "Examining Female Entrepreneur's Management Style: An Application of a Relational Frame," Journal of Business Ethics, Feb., 29, 3, pp.253-269.
- Helene, L. G. & Jacques, G.(1990). "Are Women Owner-Managers Challenging Our Definitions of Entrepreneurship? An In-Depth Survey," Journal of Business Ethics, Apr/May, 9, 4, pp.423-433.
- Hughes, K. D.(2003). "Pushed or Pulled? Women's Entry into Self-Employment and Small Business Ownership," Gender, Work and Organization, 10, 4, pp.433-454.
- Lee, Sang Suk & Osteryoung, Jerome S.(2001). "A Comparison of Determinants for Business Start-Up in the U.S. and Korea,"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pr., 39, 2, pp.193-200.
- Lerner, M. & Almor, Tamar(2002). "Relationships among Strategic Capabilities and the Performance of Women-Owned Small Ventur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pr., 40, 2, pp. 109-125.

Maysami, R. C. & Goby, V. P.(1999). "Female Business Owners in Singapore and Elsewhere: A Review of Stud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pr., 37, 2, pp.96-105.

사례발표로 본 여성기업인의 리더십 분석

강 형 자 ((주) 인터넷 시큐리티 대표이사)

목 차

1. 사 례	69
2. 기술 혁신 전략	71
3. 마케팅 추진 전략	77
4. 마케팅에서의 risk	82
5. 교훈	84
6. 여성기업인의 리더십 제안	86
7. 여성기업인의 애로사항과 해결책 모색	90

:

(KOVWA)



- 1.
- 2.
- 3.
- 4.
- 5.
- 6.
- 7.

risk



*

*

- 1) -----> SSLGATE(2003)
- 2) -----> SecureKey(2000)
- 3) (OTP) -----> , OTP, (1997)





1)

, , , ,

- :
- SecureToken :
- SecureKey : KT
-

SecureToken™



SecureKey®



®



2)

3

:

-1997 : OTP(: SecureServer &

SecureToken)



-2000 : SecureKey(PC가

USB)



-2003 : SSLGATE()

OTP “ ”



3) 가가 가

-SecureToken (H/W) -----→”



”(S/W)



-SecureKey (H/W) -----→ SSLGATE(SecureToken,



SecureKey

S/W)

4) H/W

- SecureToken : ,
- : (OTP)
- SSLGATE : SecureToken,
SecureKey .

5)

-

: SecureToken

OTP

.

-

OTP “ ”

.



1)

- IT + =

- “ ”

-

- , ,

-가 : 1, 2, 3 가 .

- :

- () : 2003 4 but 0

2)

- , ->
- :
- ,
- :
- , , ,

3) :

- : -> ->

- : 가

.

,

->

- : .

->

,

,

4)

:

-

,

-

-

,

risk

- 1)
: BM, 가
- 2)
: 가 , ()
- 3)
: 가,
- 4)
: risk ,
- 5)
: , IMF



1) risk

: risk management

2)

:

3)

:



*!

4가 ‘

1) (Pathfinding) :

가

2) (Aligning) :

가

가

가,

< :

“

4가

”

>

*!

4가 ‘

3) (Empowering) :

, ,

4) (Modeling) :

< :

“

4가 ” >

1)

2) risk management

3)

4) ()



1)

: -> .

2)

: -> , share

3)

: ,

4)

: ,

■

Tel : 02-2633-3996

토 론 문 I

여성창업 지원 정책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이 상 석(강남대학교 경영학부)

1. 여성창업 지원 정책방향

- 여성기업/창업에 대한 국/내외연구동향으로부터의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 창업, 창업 후 경영문제, 경영자특성에 관하여 gender difference에 의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 특히, 여성창업의 애로요인 중에서 가족의 책임(육아, 가사분담 등), 자금 조달(대출시 담보조건, 금융거래조건)이 남성에 비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이들 애로요인은 기업 환경적인 변수들(경제적/사회적/제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 기업내부의 경영문제, 비즈니스경험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최근 들어 여성과 남성이 구분하여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많이 줄어든 추세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기업 환경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지원시스템은 우리도 시행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지원체계나 제도들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보완하는 측면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여성기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등)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벤처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창출기업인 기술중심의 업체들은 산/학/연컨소시엄,

창업보육센터 등에 의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여성기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남/여 기업을 구분하는 제도적 지원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 현재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대기업의 실무책임자를 포함해서 소위 여기저기 거미줄처럼 걸려있는 “덩어리규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 결국, 정책의 기본방향은 동기부여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2. 정책대안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 첫째, “A는 B다”와 같은 단순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전후관계가 왜 그런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하고 연구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규제를 위한 규제 및 불필요한 환경을 제거
 - 여성창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
- 둘째, 창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국/내외창업자들 모두에 신바람 나는 지원이 필요하다.
 - “먹을 것이 많은 잔칫집에 사람이 모인다.”
 - 여성창업 애로요인(가족책임, 금융조달)을 제거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
 -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남/여 구분의 창업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 “글로벌기업가정신”이 경쟁력이다.
- 셋째, 선진국의 중소기업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쟁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 아이템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가가치가 큰, 파급효과가 큰 아이템을 개발, 적극 지원
 - 대학 및 연구소에 벤처기업을 위한 여성전용 인큐베이터 설치 운영, 산·학·연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

토 론 문 II

손 정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BI 팀장)

I. 발표자료에 제시한 정책대안

□ 기본방향 및 정책대안

-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여성 예비창업자 육성
 - 창업보육센터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예비창업자 양성 확대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에 대한 종합상담 창구 마련(여성기업 경영자문단 구성을 통한 상담창구)
- 창업자금 지원정책 발굴
 -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한 특례보증요건 마련 및 대출요건 완화와 여성기업인 100인 펀드(투자기금)조성
- 여성 창업가의 정보 및 자본에 대한 접근성 증대

II. 실행방안 제안 (※토론자가 임의로 구분)

1. 단기적인 방안 (현재, 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위주)

- 여성창업보육센터 추가 설치
 - 여성창업보육센터를 10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입주요건을 완화, 전문보육매니저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지원 바람직.
- ▶ 전문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제안 : 성장산업에 맞는 정보통신, 첨단기술, 문화, 디자인 등 여성전용센터 설치 및 운영 필요
- 창업교육의 다양화 요구
 - ▶ 다양한 창업 아이템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정보통신, 모바일 콘텐츠, 문화, 영상산업, 패션, 첨단기술 등과 시스템화 되어 있는 창업시abf레이션

과정 등의 운영 필요)

- 창업보육센터내 육아보육시설 설치

- ▶가사와 육아를 병행해야하는 여성창업자 및 경영인 등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필요(기업집적시설 등에 설치 필요)

- 여성창업자금 지원정책 발굴 및 확대

- ▶은행권의 담보대출보다는 대안으로 제시한 여성기업인100인 펀드(투자기금)을 통해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 및 신용 위주의 대출이 바람직.
- ▶현재의 정책대안으로 가능한 방법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금의 예산 규모 확대 (현재 여성부 130억원, 여경협 20억 리볼빙, 근로복지공단의 실직여성가장 창업지원등) 및 기존 자금(중기청 중소벤처창업자금 2,700억원이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2,500억원)의 여성지원 할당제(기간을 정해서) 등 제안 가능

2. 장기적인 방안

- 여성 예비창업자 육성부분

- ▶대학내 창업관련 과목 및 학제 신설이 요구
- ▶여중생, 여고생의 교과과목에 기업가 정신, 리더쉽에 대한 마인드 및 경제교육 실시 중요

-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DB구축 절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여성기업인을 위한 연수원 설립

III. 사례를 통해본 제안

☐ 외국사례

- 미국의 사례 : 여성 비즈니스센터 등
- 캐나다의 사례 : WEI(Women's Enterprise Initiative)
- 영국의 사례 : 여성기업촉진(AWE)프로그램
- 타이페이의 사례 : FREE AND YOUNG

IV. 결론

정책의 실효성이란 관련 정부부처의 의지와 정책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수요가 합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예산확보 노력) 및 정책수행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여성창업은 고용창출이나 신규산업진출 등 국가경제와 직결되며, 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이란 걸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토 론 문 III

황 순 용

(여성부 여성인력개발담당관실 여성창업자금지원)

- 연구보고서에 21세기 성장산업에서의 여성창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정책자금지원과 창업보육기능, 창업 강좌로 구분하셨는데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짐.
- 하지만 기업을 창업해놓고 내버려둔다면 성장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임.
- 그래서 정부에서도 창업단계지원, 성장단계지원, 구조조정단계지원의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보여짐.
-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창업단계지원사항과 성장단계에서 **판로·인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만을 소개하겠음.
- 정부에서 2004. 7월에 9개 부처가 논의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나타난 사항을 중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음.

1. 창업단계

-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신제품을 개발·출시하는 단계로 출점·신제품 개발 등 창업에 대한 자금소요는 크지만,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움. 창업기업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신용대출, 보증부 대출, 투자시장 등의 금융시장은 미비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파악됨.
- 창업단계 정책의 목표를 창업비용·절차를 개선하고 창업성공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난을 겪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데 정부의 목표가 있음.

1) 창업단계의 지원전략으로서는 먼저 “**창업관련 규제개선 등 창업**

One-Stop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인데 입지·환경 규제가 증가하여 공장창업여건이 악화되고 창업절차가 복잡하고 준비비용이 과중하여 창업이 위축된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임.

* 서류준비(40일)와 행정처리(77일) 등에 4개월, 비용 4천만원 소요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창업자가 **중소기업상담회사**(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와 자금알선 등을 하는 민간 컨설팅회사 : 158개)로부터 창업절차대행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정부가 지원

- 그러나 한해에 약 40,000건의 창업이 발생하는 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건수는 약 6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03실적) : 15억원 503건 → ('04계획) 15억원 600건

-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창업실태조사**(‘04.3~4월)를 통하여 발굴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창업중인 기업,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으로부터 공장설립규제를 상시적으로 발굴·개선(지방중소기업청),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04. 하), **일괄의제처리 인허가 사항**을 확대(48개→65개)하고 민원처리협의회·사전심사청구제·일괄협의제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대행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고용을 창출(제조업:10인, 서비스업:5인)하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임.

* ‘02년 현재 전체 기업들 중 11.4%가 동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창업기업 40,000개중 10%인 4,00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할 필요

- 2) “**창업단계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인데 문제점 및 현황을 살펴보면 신보의 지식기반창업보증,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이 매출액 등을 감안하지 않는 진정한 창업보증제도이나 지원실적은 미미

< 창업보증 실적(‘04.1월~5월) >

	신용보증 기금	기술신용보증 기금
창업보증공급액	155억원	2,143억원
총 보증공급중 구성비	0.12%	5.0%
지원업체수	204개	1,112개

* 미국의 경우 보증공급액 중 창업기업 비중이 26% 정도를 차지하며, 프랑스의 경우 ‘02년 보증대상 기업의 52%가 창업기업

- 기술기업의 창업에 주로 활용되는 기술평가보증은 기보의 보증잔액의 7.5%에 불과('03년)
 -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창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기술성·사업성은 있으나 영업실적 미비로 자금조달능력이 낮은 창업중소기업에 집중 지원
 - 기술신보를 기술창업기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 특화하여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07년까지 50%로 확대('03년 7.5%)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보증이 80%이상 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며 신규 일반보증 공급은 단계적으로 축소(만기연장은 허용)할 예정임
 - 신보도 일반 중소기업 및 기술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범용 신용보증 전문기관으로 운용하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비중을 전체보증의 10~2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3)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며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창업단계에서는 자금·판로 등 사업화여건 부족으로 신기술 사업화에 애로가 있음.
- *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39%(기업 40%, 개인 26%)에 불과
 - 정부 연구개발 사업도 기술 생산 위주로 운영되어 시장수요 반영 및 사업화 미흡(기술사업화 성공률이 12%수준)한 수준임.
 - 개선방안으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등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전과정을 기획·관리하고, 자금·인력 등을 연계 지원하는 “R&BD” 프로그램 시행하고
 - * 창업·M&A·기술이전 등을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지원
 - 초기단계 신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평가를 지원('04년 20억원)하고, 개발기술에 대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04년, 750억원)토록 함.
 - 신기술사업화 인프라 구축 및 공공기관의 사업화 지원 확대
 - “한국기술거래소”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공신력있는 기술관련 전문기관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신기술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사업화 초기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토록하고, 개인발명가와 특허기술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발명진흥회, 중진공, 기보, 기술거래소)토록 할 예정임.

4)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확대”와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의 운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임.

- 먼저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의무 확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초기 판로개척이 어려워 신기술의 사업화에 애로가 많고, 각 부처가 다양한 구매촉진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한전과 석유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표본 조사한 결과 4년간(’00~’03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 구매액의 0.06%에 불과

-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조달물품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신기술제품 구매는 저조함.

- 개선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20% 구매 의무화 전면 실시하고

*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구입할 때 해당 품목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구매액 가운데 20%를 구매

- ’04년에는 33개 기관에 시범 적용하고, ’05년부터 151개 공공기관 및 지자체(광역시, 기초포함)로 확대 적용 및 공공구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 신기술제품 구매실적 반영토록 할 예정임.

* 신기술인증제품 D/B를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제공(기술거래소)

- 정부투자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실시

- 국방부·한전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 26개 품목에 대해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시행중(중기청, ’04년 40억원)이며 ’08년까지 10개기관으로 확대 예정

5)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의 운영 효율화”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 창업보육센터(BI)는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기청으로부터 지정받은 BI는 전국적으로 291개임.

- 그러나 그간 BI산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인식부족과 지원인프라 부족으로 창업성공률(72.6%)*과 보육능력이 미흡하였고

* 졸업기업(2,849개) : 운영중(1,886) 인수합병(181) 휴폐업(782)

- 또한 BI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서비스업·농업벤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한 창업지원이 부족하였음.

* 전국 291개 중기청 창업보육센터에 4,020개 창업준비기업 중 서비스분야 BI는 25개소에 359개(8.9%)에 불과

- 개선 방안으로는 BI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BI운영을 효율화('04.하반기)하고 BI평가를 통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하며 입주율이 낮거나 목적외 사용 등 운영이 부실한 BI는 지정 취소('04,하반기)할 예정임.

- BI 센터장과 매니저의 보육운영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보육운영성과와 연동한 매니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BI를 연구개발위주에서 생산형으로 전환하고 졸업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Post-BI시범사업 추진(부산청 등 유희공간 활용)하고 디자인·오락·문화 등 서비스분야 창업보육공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서비스분야 창업보육공간 비율이 높은 BI가 공간확대 신청시 우선적으로 지정되도록 할 예정임.

2. 성장단계

- 성장단계에서는 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 즉 판로·인력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만을 소개하겠음.

1) **“내수시장 판로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 최근의 내수부진 등으로 매출감소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실태조사 경영상태악화 요인('04.5월, 복수응답)

① 매출감소(64.3%) ② 시장경쟁격화(31.7%) ③ 대금회수곤란(21.6%)

- 특히, 중소기업제품은 대기업에 비하여 소비자인지도가 미흡하여 판로 개척에 애로가 많고

- 중소기업제품 판매공간의 제약, 높은 비용부담으로 인한 방송광고 활용 제약 등으로 자체적인 판로개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임.

○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10억원)하고 업종별 조합 및 단체주관 중소기업 전문전시회 지원(5억원)하고

* 전시장 임차료, 부스설치비, 홍보비, 해외바이어 초청경비 등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제품 전담판매 CA TV채널 확보추진 할 계획임.

○ 소비자인지도가 높은 홈쇼핑 및 KAIST브랜드를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인 데 CJ홈쇼핑과 협약을 체결, 저렴한 수수료로 직접 판매토록 지원하고 KAIST브랜드를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토록 할 계획('04년 9억원)

2)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 인력난은 중소기업 경영의 주요 애로요인 중 하나

* 중소기업실태조사('03.9월)의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

인력난(21.7%), 내수부진(15.0%), 자금난(14.7%), 노사분규(0.7%)

- 대기업·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고급인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황>

(단위 : %, 천명)

구분	'00	'01	'02	'03
부족률	4.8	4.0	9.4	6.2
부족인원	84	76	205	139

○ 개선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제고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임.

- 중소기업은 Dynamic(역동적), Developing(발전적), Dream(꿈)이라는 “신

3D” 또는 “성장비전” 제시운동 전개

- 성공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다큐멘터리 제작, 중소기업 CEO전기 발간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레인콤(MP 3), 트랙스타(등산화), 홍진크라운(헬멧) 등 다수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스타 기업으로 성장

○ 인적자원의 고급화·고도화 추진

- 업종·지역단위로 중소기업을 **종합 진단**하여 공동훈련, 채용, 인적자원 관리 선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사내 기술전문가는 기능직을 교육시키고, 기능직은 단순 노무직을 교육시키는 **중소기업 사내 학습조직화를 지원**

- 중소기업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사업 활성화**방안 수립 추진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율은 4.2%에 불과

○ 장기적인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확대**

○ 열악한 작업환경을 근로자 친화적으로 개선

- 직무기피요인(열·분진·소음) **해소 장비 개발**(’04년 197억원, 추경 100억원) 및 위험·유해요인 제거 **Clean사업**(’04년 500억원) 지원

-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후 신규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지급제도 신설

○ 인력난 심각 분야에 단기 직접 대응 강화

- 기술사, 대기업 퇴직자 등의 중소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채용장려금**(1인당 120만원씩 최대 3명, 1년간) 제도 신설

-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

- 공공성이 미약한 부문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축소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기능·노무인력 부족율(’03) : 부족율 7.5%, 부족인원 104천명

○ 청년 실업자 및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지원 강화**

- 청년층의 성향을 고려하여 2~3명씩 그룹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토록 지원

하는 단체형 인턴제도를 도입

- 공공 구인·구직 알선 사이트를 영점 평가하여 점차 통합(Single Window)해 나가고 화상인터뷰 시스템 등을 보강